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 석사 학위 논문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2023 년 8 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평생교육·인적자원개발전공
이 원 근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주 동 범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평생교육·인적자원개발 전공
이 원 근

이원근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8월 18일



목차

표 목차	iii
Abstract	iv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4
3. 용어의 정의	5
4. 연구의 제한점	5
II. 이론적 배경	6
1.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6
2. 장애인 생활만족도	16
3.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와 생활만족도	22
III. 연구방법	30
1. 연구대상	30
2. 측정도구	31
3. 자료수집	35
4. 자료처리	36
IV. 연구결과	37

1. 변인의 기술통계	37
2. 평생교육 참여.....	38
3. 생활만족도.....	40
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 차이.....	42
5.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	56
6. 평생교육 참여영역과 생활만족도의 관계.....	61
7. 평생교육 참여에 따른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63
V. 논의 및 결론	67
1. 논의.....	67
2. 결론 및 제언.....	79
참고문헌.....	82
부록(설문지).....	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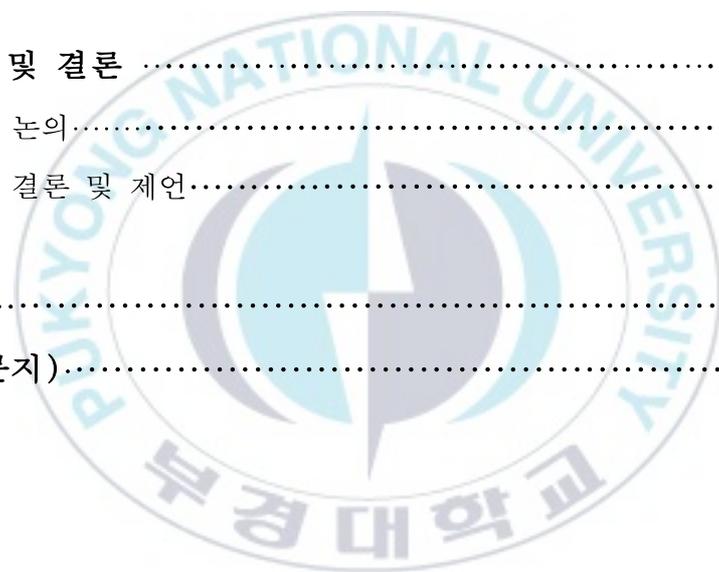


표 목차

〈표 III-1〉 연구대상의 특성	30
〈표 III-2〉 독립변수의 설문지 구성	33
〈표 III-3〉 종속변수의 설문지 구성	34
〈표 IV-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37
〈표 IV-2〉 평생교육 참여실태(다중답변).....	38
〈표 IV-3〉 평생교육 참여만족 실태(단일답변).....	39
〈표 IV-4〉 참여실태 1순위 선호도가 동일한 연구	40
〈표 IV-5〉 생활만족도 수준	41
〈표 IV-6〉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참여영역 차이.....	44
〈표 IV-7〉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참여방법 차이.....	47
〈표 IV-8〉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참여기관 차이.....	50
〈표 IV-9〉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참여목적 차이.....	53
〈표 IV-10〉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참여만족 차이.....	55
〈표 IV-1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t-test).....	56
〈표 IV-1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ANOVA).....	58
〈표 IV-13〉 평생교육 참여와 생활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61
〈표 IV-14〉 평생교육 참여영역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64
〈표 IV-15〉 평생교육 참여방법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65
〈표 IV-16〉 평생교육 참여목적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66

The Effect of Participation in Lifelong Educ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on Life Satisfaction

Won Keun Le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In this study, 207 disabled adults aged 17 or older residing in Busan were surveyed to find out the life satisfaction as an outcome of participation in lifelong education of the disabl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lay a role as a priming water for promoting and vitalizing participation in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who are vulnerable to educational accessibility and provision of opportunities, guaranteeing social participation such as lifelong education is an important factor influencing life satisfaction such as a sense of presence, participation, and achievement. Accordingly,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surveys, and SPSS statistics are as follo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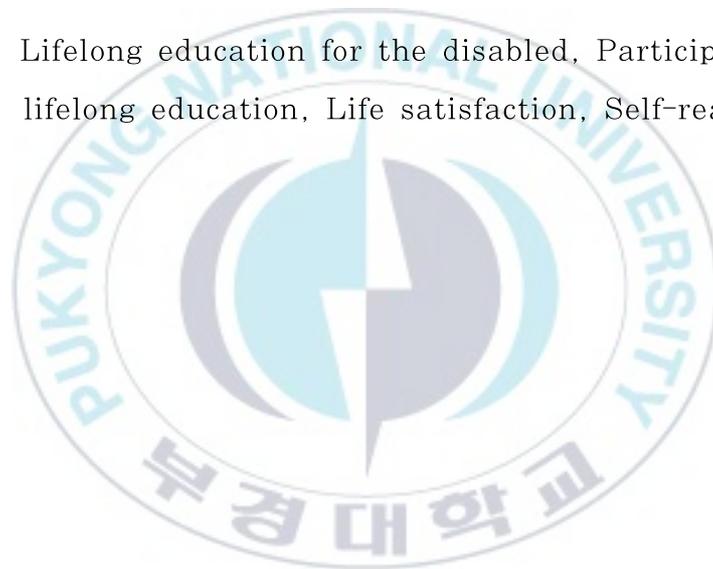
First, the participation status of adults with disabilities in lifelong education is "culture and arts education", "instructor lectures", "welfare centers for the disabled", "psychological satisfaction and happiness", and "very, helpful". Second, it will help as a reference for the development of new life long education prog

rams by reflecting information on the purpose of participation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participation satisfact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ccording to the 'walking method'. Third, among the sub-factors of life satisfaction of adults with disabilities, work and economy showed the lowest result, which is closely related to limited employment and social-economic life due to disability. Fourth, Among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women, severe disabilities, having a job, 17-39 years old (lower age), internal institutional disorders, self-walking, and high school graduation" factors showed higher life satisfaction. In addition, among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i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area of material-related life satisfaction regions (work-economy, food-clothing-shelter) according to activity status factors (job status, disability type, walking method'). Fifth, i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at adults with disabilities participated in lifelong education vocational training reduced life satisfaction, and participation in learning clubs improved life satisfaction. This has proven that participation in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affects life satisfaction, even to a limited range, and this is done in understanding the situation of the disability and truly desired learning opportunities.

The conclusion drawn from these research results proved that the participation of the disabled in lifelong education has a significant effect on life satisfaction as a result of personal intern

al change. In order to improve life satisfaction, realistic improvement plans were proposed through a review of sociodemographic factors ('job status, disability type, walking method') and lifelong education participation factors ('vocational training, learning club'). Therefore, lifelong education is a concept that promotes lifelong learning, and in the end, it is the way to reach life satisfaction by supporting self-realization.

Keyword: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Participation in lifelong education, Life satisfaction, Self-realization.



I .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회의 변화 속에서 삶을 주도적으로나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교육이나 학습이 최상의 대비책으로써 필요하며, 학습자 본인의 개별적인 특성과는 무관하게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학습에 대한 적성과 능력에 따라서 평등하도록 학습기회가 열려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학습정책과 같은 제도적 측면에서도 평생교육의 참여기회가 구체화되어 있어야 한다(한준상, 2002). 특히, 교육적인 접근성 및 기회제공의 배제가 되기 쉬운 교육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등에게는 사회참여·네트워킹에 대한 보장이 존재감·참여감·성취감과 같은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이계승, 2014; Obiakor et al., 2019).

2021년 교육부 종합감사(2021.10.21)에서는 2020년 기준으로 18세 이상의 장애성인이 2008년에 비해서 약 23% 증가한 총 262만 명, 특히 고령 장애(65세 이상) 인구는 2008년 장애 인구의 전체 대비 36%에서 2020년에는 50% 정도로 지속적인 증가의 추세에 있을 정도로 장애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는 전체의 평생교육 학습자 수에 대비해서 0.03%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한 상황으로 나타났다(장애인생활신문, 2021.11.04).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라는 특수성으로 비장애인보다 인지적·신체적 기능이 부족하여 가치의 평가 절하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어 왔다(김용욱 외, 2011; Egilson et al., 2021). 그로 인해, 교육 성취 및 고용 전

망을 크게 어둡게 하여 잠재적으로는 평생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도 있다(National Centre for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2015). 이에 사회 구성원으로 해야 할 역할과 사회변화의 인식·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해서 적극적인 교육 활동·훈련과 제도적인 교육 참여의 기회보장이 필요하다(Allmendinger et al., 2019; Billett, 2010).

그동안 비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에 관한 여러 연구에 의하면 생활만족도(고선희, 2013; 고혜영, 김효정, 2022; 김미란, 2013; 김재인, 2014; 김홍록, 2015; 허영주, 2016), 학력에 따라 소득 격차의 확대(이재준, 함은혜, 2021), 사회적 자본 형성(박상옥 외, 2019), 자아존중감(황지혜, 2010), 생의 의미 인식(고종태 외, 2008)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평생교육 참여의 개인적인 내적 변화의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한 평생교육 참여의 성과에 관한 발표 중에서도 특히 생활만족도는 장애인들이 장애 자체로써 왜곡된 사회적인 인식·편견 등에 의한 정서적인 차별·배타 의식과 기능적 제한에 의한 한정적인 일상적 삶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있으므로(박명숙, 2012; 박용순, 2017) 매우 중요하다. 생활만족도는 생활 전반에 대한 행복감의 중요한 지표로써 행복한 삶을 위해 현재의 상태를 개선함은 생활만족도의 향상을 의미하고, 생활만족도의 향상은 개인이 처한 상황보다 만족스러운 생활의 영위에 도움을 주는 사회복지의 지원 방향으로도 사용될 만큼 삶의 중요한 요인이다(김연수, 1995).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인간과 평생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으로(Carroll et al., 2018; Waziana et al., 2020) 삶의 질과 유사한 의미의 생활만족도는 평생교육과 각자의 중요성만큼이나 밀접한 연계성도 있다. 그 연계성은 생활만족도의 향상을 기대하여 평생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참여 동기의 발생이 생겨나고, 평생교육을 통해 향상된 생활만족도는 재참여 동기를

유발하게 시킴으로써 참여를 지속시키게 하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 (신소정, 2018; 한수정, 2016), 그러한 평생교육 참여가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는 비장애인 대상의 선행연구에서도 알 수가 있다(김현규, 2020; 김홍록, 2015; 안수인 외, 2021; 지정례, 2013; 최운실, 2006; 최채은, 2012; 황지혜, 2010).

아울러, 비장애인 대상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내적 변화의 성과 파악 연구는 장애인 대상의 연구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다양한 방향에서 발전해 왔다(김귀자, 2021; 김재인, 2014; 김종식, 임왕규, 2014; 김홍록, 2015; 안은미, 2015; 양미란, 2015; 윤혜경, 2022; 이재준, 함은혜, 2018). 그러나,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로 인한 내적 변화의 성과연구는 '삶의 질(김두영, 2021; 전리상, 2022), 학습 성과(조창빈 외, 2022)' 정도만이 검색될 정도로 전체적인 누적연구가 부족하고,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이에 평생교육 참여로 발생하는 생활만족도의 구체적인 결과 분석을 통한 더 많은 장애인의 참여 촉진에 대한 방향성을 찾을 수가 있으므로 서비스 수요자의 욕구 충족과 참여 환경의 조절 등을 해결하는 최적의 방법으로써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필요성이 야기된다.

이와 함께, 연구대상이 되는 장애성인은 사회참여의 기회 확대, 여가 활용, 대인관계 향상 등을 목적으로 평생교육에 참여하여(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2020)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비롯한 사회적응, 필요한 능력의 신장, 심리적 안정 등의 성과를 경험하였으며(김두영, 김미아, 2015; 김미아, 2017; 김미영 외, 2019; 서유경 외, 2022; 정현아, 2020; 조창빈 외, 2021), 평생교육 참여에 대한 전반적인 내적인 인식·만족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도 이미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김두영, 2021; 전리상, 2022; 조창빈 외, 2022). 그뿐 아니라, 평생교육만큼이나 사회참여

로 인한 삶의 주관적·심리적·사회적 의욕을 고양하거나 공동체 통합의 원동력으로 만드는 ‘여가활동의 참여’로 인해서도 장애인의 자아존중감, 잠재된 가능성의 발전, 생활만족도 등을 높여준다는 선행연구(김소영, 2014; 김학천, 2017; 박종빈, 백영은, 2022; 이중섭, 2010; 정병두, 2019; 정연성, 2012; 최희철 외, 2019)를 통해서도 더욱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에 따라 생활만족도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이 연구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를 통한 성과로서의 생활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부산 지역에서 거주하는 장애성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참여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2. 연구문제

위와 같은 연구에 대한 필요성 및 목적을 충분하게 달성하기 위해서, 이 연구는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장애성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 생활만족도는 어떠한가?

둘째,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참여는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용어의 정의

가. 장애인 평생교육

“장애인이 참여하거나 장애인을 위해 기획 또는 설계되었거나 장애인도 함께 포함되어 운영되는 모든 형태의 교육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생교육의 일반적 기본 개념의 성격과 장애인의 특성·요구를 고려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교육 활동이다(국립특수교육원, 2021a).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연구대상의 지역적인 제한점이다. 연구대상의 지역이 모든 거주지역이 아닌 부산 지역에만 거주하는 한정적인 장애성인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표집 대상의 제한성으로 표집의 대표성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연구대상의 장애유형 비율에 관한 제한점이다. 연구대상의 장애유형을 지체·뇌병변 장애, 시각·청각·언어·안면 장애, 발달·정신 장애, 내부기관 장애, 중복장애로 다양하게 구성하고, 장애 유형별로 비슷한 비율의 표집이어야만 일반화된 장애인에 관한 연구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장애 유형별로 비율의 차이가 있다는 점이 제한점을 지닌다.

Ⅱ. 이론적 배경

1.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가. 장애인 평생교육

평생교육에 대한 개념적 특성에 대해서, 이해주 외(2018)는 “첫째, 평생교육은 ‘다양한 장소에서 실시되는’ 조직적인 교육 활동이다. 둘째, 평생교육은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교육 활동이다. 셋째, 평생교육은 ‘일정한 시기’에만 한정되는 교육 활동이 아니라 ‘전 생애주기’에 걸쳐서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교육 활동이다. 넷째, 평생교육은 특정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활동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활동이다. 다섯째, 평생교육은 교육자와 학습자, 그리고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행동의 변화를 추구하는 상호 교육 활동이다. 여섯째,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이다. 일곱째, 평생교육은 ‘실생활 중심’의 다양한 교육 활동이다.”

장애인 평생교육은 “장애인이 참여하거나 장애인을 위해 기획 또는 설계되었거나 장애인도 함께 포함되어 운영되는 모든 형태의 교육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생교육의 일반적 기본 개념의 성격과 장애인의 특성·요구를 고려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교육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장애인의 특성·요구를 고려하는 장애인의 삶의 질 제고, 자기 결정 향상, 역량 강화, 자립 생활 증진 등을 목적으로 직업 획득·유지, 여가·문화생활 증진, 의미 있는 낮 시간 활용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교육내용으로 점점 확장되고 있

다(국립특수교육원, 2021a).

또한, 관련 법 조항의 규정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의 의미를 유추해보면, '학교 교육을 제외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이라는 평생교육법 제2조의 규정과 '장애인 평생교육 과정의 계속 교육(continuing education)'이라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조에서의 규정을 고려하여 평생교육에 대한 대상을 '학령기가 지난 성인'으로 한정하여 '대학교, 대학원의 전공과 정규교육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장애성인'을 대상이라는 의미에다가 평생교육의 정의에서 제한하는 '교육적인 활동'과 관련된 행위라는 의미가 더해진 복합적인 것으로 정의할 수가 있다. 이 기준으로 특수학교 전공과에서의 교육 프로그램, 장애인복지관 등에서의 치료와 관련된 프로그램(언어치료, 물리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 등은 장애인 평생교육에서 제외대상이다(김두영, 박원희, 2013). 이처럼 장애인 평생교육의 개념은 그 기반이 되었던 평생교육의 정의를 그대로 수용하거나, 전 생애와 전 사회적인 영역에서의 교육이라는 피상적인 개념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거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이라는 협의의 의미에 국한하여 사용하는 때도 있다(백종면, 김영표, 2019).

아울러, 계속 교육이라는 용어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성인교육과 함께 사용되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자신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역량개발이나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성인들에게 학교 정규과정을 마친 후에도 계속하여 학습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한우섭 외, 2019). 계속 교육의 개념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므로 학교 교육의 연장선 위에서 교육의 계속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현재의 체제를 비판하지 않는 개념이다(Jarvis, 1983: 한우섭 외, 2019에서 재인용).

다음으로서, 모든 사람이 지녀야만 하는 기본적 교육권으로서 평생학습의 보장이 필요하므로 장애 유형·정도의 이유만으로 장애인이 평생학습권

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이 비장애인의 평생 학습과는 다른 차원으로 강조해야만 되는 이유는 첫째, 생의 수단이자 목표가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이기 때문이다. 비장애인의 학습은 생의 목표 실현을 위한 수단의 성격이라면, 장애인들의 경우는 사회적·환경적·외적인 관계적 장애부터 신체적·심리적·내적인 개인적 장애까지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생의 목표를 실현하기가 쉽지 않다. 장애인의 생의 목표는 비장애인과 비슷하게 사회구성원이라는 존재 가치에서 찾아오는 소소함의 보람으로 느껴지는 행복 추구일 것이다. 둘째, 재활의 수단이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이기 때문이다. 의료재활, 직업 재활, 교육 재활, 심리 재활 등으로 분류하는 재활의 종류에서 직업 재활은 평생학습 차원에서의 교육과 동일차원의 재활이다. 장애인에게 중요한 재활의 수단 그 자체가 평생학습권이다. 셋째, 장애인복지의 성취된 현실적 완성도가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이다. 장애인복지가 진정한 의미에서 생산적·호혜적인 관계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이 보장될 때이다. 장애인의 복지가 일방적인 시혜의 차원에서 머무른다는 것은 평생학습이 제도적·현실적으로 모든 장애인에게 보장이 되지 못할 때이다. 장애인에게 기본적 인권, 행복추구권은 평생학습권의 실현에 있고, 장애인 재활과 복지의 영역으로의 완성도를 만들어 주는 주춧돌이라 할 수가 있다(박원희, 2002).

또한, 최근 특수교육통계의 결과를 살펴보면,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장애성인 중 진학이나 취업을 하지 못하여 가정이나 시설로 돌아가는 비율이 59.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교육부, 2021). 학령기 교육을 중심으로 이루는 장애인 교육은 생애 주기적으로 성인기에 진입한 장애인이 통합된 지역사회에서 성인으로 해야 할 역할 수행이 필요로 함에도, 취업·고용 유지 등을 위한 교육에 대한 제한된 교육기회로써 성공적인 적응하기의 어려움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박희찬, 2016; 홍성두 외, 2017). 이는 전 생애에 걸친 배움·학습을 통해서 장애인이 스스로가 지니는 인간의 고유한 학습에 대한 본능을 일깨워서 비장애인과 함께 장애인이 통합된 사회 속에서도 스스로가 생활할 수 있는 자립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고(조창빈, 2018a), 이렇게 사회변화에 인식·대응할 수 있으려면 지속적인 교육과 더불어 장애의 특성을 반영하는 장비와 편의시설이 요구된다(최윤영, 이세희, 2020).

이처럼, 장애인들에 대한 평생교육의 지원·확대 등은 지식기반사회에서 다양한 평생 교육적 지식·기술을 습득하여 필요로 하는 사회적·국가적 차원의 인적자원으로 양성됨과 당당한 시민으로서의 모습·역할을 가질 기회의 제공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정연수, 2017). 그러므로,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의미는 첫째, 보편적 권리로서 누구나 누려야 하는 교육, 둘째, 실제적 권리로서 장애인의 의미 있는 삶을 보장하는데 유용한 도구, 셋째, 확장적 권리로서 진정한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국립특수교육원, 2021b).

다음으로서, 장애인 평생교육의 법률적인 근거는 2007년 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조에 기반을 두고, 2015년에는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특성·욕구에 적합한 지원·권리보장을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2016년에는 「평생교육법」 내에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련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평생교육법이 일부 개정되었다. 이는 장애인 평생교육이 「특수교육법」에서 「평생교육법」으로 이관이 됨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책무가 강화되었다(최윤영, 이세희, 2020).

그동안 장애인의 평생교육은 비장애인과 함께 언제나, 어디에서나 모두가 균등한 교육을 받는 진정한 평생교육의 취지라고 생각했지만, 장애인 평생교육의 현실적인 위상은 장애인 관련 법령에만 명시된 제한된 분야로

서만 존재했었다. 그리하여 2016년 개정된 「평생교육법」에서 드디어 일반 평생교육 체계 내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이 존립하는 의미 있는 체계로 만들었다는 것은 위상을 높였다는 측면으로 큰 의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의 법적 제도가 진정으로 구축이 되었으므로 장애인 평생교육은 주변부가 아닌 일반 평생교육 체계 내에서 주류화되고, 일반 평생교육의 변화와 발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되었다(김삼섭 외, 2019).

더욱이, 진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갈 수 있으려면 평생교육을 통해서 나아가는 데 필요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획득하고, 다른 사회구성원과 소통하며 살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는 평생교육의 기회 제공을 폭넓게 보장하는 법규들이 필요로 하다.

다음으로서, 1998년부터 2018년까지의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한 국내 연구의 동향분석 연구에서는 첫째, 지난 20년간의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게재된 논문은 2007년 이후(특히 2015년 이후)로 급증하여 장애인복지·특수교육 분야에서 집중적인 게재가 되었다. 둘째, 많은 비중의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조사연구, 장애 영역은 발달장애 영역, 실제 연구대상은 장애인 당사자보다는 부모나 그 외 관련자였다. 셋째, 연구주제 영역은 실천현장·정책 관련 연구가 많았지만, 학문적 근간의 패러다임·이론, 철학, 학문연구에 대한 것은 많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된 국내의 연구 경향은 평생교육 철학에 대한 논의와 패러다임·이론적 고찰보다는 장애인 학습자 또는 종사자의 요구·프로그램, 평생교육 기관의 실천적 접근에만 편중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장애인 평생교육이 실천 영역임은 분명하지만, 장애인 평생교육의 학문적 발전과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평생교육 이론 및 개념, 패러다임 및 이념, 국가 비교연구 등으로 확장하여 탐구하기를 숙고하자고 제언한다(이하영, 임경원, 2019).

이와 함께, 장애인 평생교육의 강화를 위한 과제로서는 첫째, 장애인의 유형·특성을 고려하는 평생교육의 프로그램·교육과정 등을 개발하여 평생교육의 질·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향상을 위해서는 장애의 유형·특성 및 나이별로 특화된 평생교육의 프로그램·교육과정을 개발·보급할 필요가 있고, 장애인 평생교육의 명확한 목표 설정과 평생교육의 프로그램·교육과정의 표준화 검토를 통한 장애인 평생교육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부처·기관 간에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된 중복 사업의 조정과 여러 기관에서의 장애인 평생교육의 프로그램·교육과정의 질·운영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 더불어, 장애인 평생교육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체계의 구축과 장애인복지시설의 평생교육사 배치를 통한 장애인 평생교육의 기획·운영·관리 등을 담당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질을 높이고,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받는 평생교육 환경의 조성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셋째, 장애인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한 실태조사 관련 조항의 신설이나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방안을 검토해야만 한다. 더구나, 장애인의 유형·특성을 고려한 평생교육의 프로그램·교육과정의 개발을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입법의 검토, 장애인 평생교육의 현황·실태에 관한 조사조항을 신설하는 입법의 검토, 장애인 평생교육의 체계적 지원의 내용이 규정된 법률로써 제정하는 입법의 검토 등이 가능하다(조인식, 2022).

나.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참여에 관한 연구는 1978년 캐나다 토론토에 본부를 둔 국제성인 교육 협회(ICAE; International Council for Adult Education)가 그의 정기 학술 기관지인 Convergence를 통하여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회과학적

연구방법으로 정립·제창한 새로운 연구방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75년부터 용인 3개 마을에서 수행된 농촌개발실습장 실천연구사업이 하나의 참여 연구로서 그 이후 최근까지 30여 년에 걸친 국내에서의 참여 연구 및 관련된 학술 활동이 있었고, 참여연구자는 세상을 보는 올바른 가치관과 중립적 시각, 연구대상에 대한 존경과 배려 등을 가지면서 평생학습자의 정신으로 연구사업을 추진할 의무가 있다(정지웅, 2012).

한편, 평생교육 참여가 종착점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스스로에게는 교육 심화를 위한 자기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 자기평가로부터는 세상에 대한 폭넓은 관점·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또다시, 그것은 자기 주도의 교육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 학습자의 자발성이 자기 변화의 주도적 과정으로 이어지는 점을 고려했을 때, 평생교육 참여는 평생교육기관의 성과와 평생학습을 통한 개인·사회의 변화가 구분 지어지는 논의로 되어야 하므로(정혜령, 2016), 학습성과는 개인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로 구분해야 한다. 학습을 사회적 측면을 간과하고 개인적 의존 활동으로 한정하려는 경향이 있는 데, 학습은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결과는 사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최운실, 2005). 개별적 평생교육 참여가 네트워크화로 이어져 사회적 학습문화의 정착이라는 사회적 성과를 이룰 수도 있고, 평생교육 과정에 입문 후에는 평생교육에 능동적·호의적으로 참여하며 지속적인 학습의 의지는 사회적 확장으로 이어지게 만든다(오현주, 2016).

그뿐 아니라, 2007년부터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한국 성인에 대한 평생학습 실태조사의 경우에는 평생학습의 성과를 개인 영역, 사회영역, 직업영역으로 나누어 보고하였는데, 개인 영역은 교양의 함양, 지식의 습득, 정신적인 건강 유지, 육체적인 건강 유지 등 자기의 계발에 관한 내용, 사회영역은 지역사회 참여 증가, 시민의식 증진 등 사회적 상호

작용과 관련된 내용, 직업영역은 직무 관련 업무능력 향상, 취업·이직·창업에 도움이 되는 문항, 승진, 성과급·연봉 등의 소득증대 등 고용안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영역으로 전체를 구성하였다.

즉, 사회참여를 통하여 문제해결 능력의 제고시킴으로써 건전한 시민사회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평생학습에 대한 성과는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참여로 인한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을 지표로 삼는 것이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중요하다(이기언, 2013). 이처럼, 결과를 가시화하면 할수록 과정이 소외된다는 과정 중심교육과는 별개로 교육을 통한 가시적인 성과로의 내재적 변화에 관한 연구는 평생학습의 참여 지속과 참여빈도 증가를 위해서도 계속되어야만 한다(정민승, 최운실, 2007).

다음으로서, 2016년 평생교육법의 개정으로 국가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센터의 설립을 포함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대한 책무를 부여했지만, 국가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센터는 비장애인 평생교육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에 관한 규정(평생교육법 제18조 제1항)과 비교해서 장애인 평생교육은 관련된 사항에 관한 규정은 현행의 법령에는 없으므로 평생교육 참여의 촉진을 위해서라도 관련 규정들의 수정·신설이 반드시 필수적이다(조인식, 2022).

그러한 장애인 평생교육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에 관한 규정은 미비하지만, 이전까지 장애인에 관련한 평생교육의 실태를 다뤘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전국단위(곽승철 외, 2010; 이미현, 박성지, 2018; 조창빈 외, 2022; 조창빈 외, 2021; 조창빈 외, 2018a) 또는 시도별 단위(김미영 외, 2019; 서유경 외, 2022; 전리상, 2022; 정해동, 이성봉, 2007; 조창빈 외, 2018b)로도 대체로 꾸준히 이루어졌음이 파악되었고,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실태조사는 최근에도 연구가 존재했다(부산 인재평생교육진흥원, 2019; 서유경 외, 2022). 그러한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

사' 연구는 다음과 같다.

박미진, 김기룡(2021)은 시설의 이용 경험과 요구를 서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관점에서 조사·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는 시설이용 경험의 부분에서는 시설에 다니는 이유를 발달장애 학습자는 '즐거운 여가·문화생활' 위해서가 가장 많았고, 시설의 만족도(프로그램, 교·강사, 교재·교구, 편의 제공 등)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용에 대한 요구로는 '다니고 싶을 때까지 시설에 다니고 싶다.'가 가장 많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는 '시설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61.8%가 원하였다. 시설의 공간 중에서는 '교실·체육관실·심리안정실'을 가장 선호하였고, 시설에 대한 요구사항은 '카페가 있으면 좋겠다'이었다. 프로그램의 진행은 '외부 프로그램·체험'을 가장 원하였고, 가장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이었다. 참여하고 싶지 않은 프로그램은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38.2%) > 직업능력향상교육 프로그램(28.0%) > 기초문해교육 프로그램(14.7%)'의 순이었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가 없을 때는 '피곤할 때'이었다. 학습자의 '성별과 장애 정도'에 따른 '좋아하는 장소, 시설이용 기간, 시설 변화 요구' 관련 요인들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요구를 서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만 할 것이고, 시설이용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시설이용에 대한 경험, 이용요구 등이 그들의 특성이 고려되는 자료의 제공이므로 직접적인 연구에 관련한 당사자의 참여와 요구하는 목소리를 포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이미현, 박성지(2018)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전국의 장애인복지관을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지역으로 구분하여, 프로그램 이용하는 장애성인의 참여 현황과 욕구를 조사·분석하였다. 먼저,

참여 현황의 결론으로 첫째, 도시보다 열악한 교육 환경·문화 여건 등을 고려하는 농어촌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활성화가 필요하다. 둘째, 관련 프로그램은 '여가 스포츠(73%), 문화예술취미(63%)' 영역이 가장 많았는데, 건강과 여가활동을 통해 생활의 즐거움·만족도를 향상하게 시키려는 의도의 반영이다. 셋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경제적 부담 없이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욕구 조사의 결과는 첫째, 평생교육 참여 욕구는 지역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없이 모두 취미·여가생활과 관련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참여를 원한다. 둘째, 선호하는 평생교육기관으로는 모두 장애인복지관이 었다. 셋째, 개선사항으로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를 가장 많이 했고, 특히, 장애 유형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 이동 및 편의에 관한 인프라, 장애 유형·특성에 맞는 제도적인 지원을 요구하였다. 또한, 장애 여부 관련 없이 성인들이 선호하는 취미·여가 관련 프로그램이 통합프로그램으로 개발될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데, 통합적인 참여가 가능할 수 있는 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은 성인 장애인의 사회통합 계기, 삶의 만족도 증진에 도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대상자들의 욕구가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도록 지역의 특성 고려하는 시간, 교육 기간 등의 측면에서 교육과정의 구성 및 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이 연구는 한 지역에 제한 않고 다양한 지역에서 장애인의 평생교육 욕구, 참여 현황에 관한 차이점을 알아보는 연구로써 6개의 도, 4개의 특별·광역시 지역들을 크게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지역의 3부분으로 구분하여 연구한 점이 의미가 크다.

김두영(2015)은 정부·지자체 차원에서의 최근 10여 년 동안에 이루어진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 및 요구를 조사했던 10편 정도의 연구보고서를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련한 프로그램 이용의 실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요구, 활성화를 위한 요구로써 나누어 분석하였다. 장애인의 평생교

육 기반을 구축시키는 방안을 평생교육 제도에 관련한 세 가지의 측면으로 이뤄진 평생학습 기회 제공('장애인의 학습 요구에 대한 적합한 평생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평생학습 선택 지원('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정보를 윈스톱으로도 알 수가 있는 정보 제공의 체제를 구축'), 평생학습 평가 인정 제도('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안내, 장애특성을 고려한 학습정보의 제공이 가능할 수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소, 적합 직종의 개발, 장애인 전문 직업훈련소를 설치·운영')의 관점으로 주장하였다.

부산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연구 중에서 서유경 외(2022)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에 대한 경험과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가 목적이다. 참여했거나 현재 참여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고, 평생교육 참여를 통해서 정보습득, 학습 욕구, 자신감과 적극성, 자립 생활, 사회적 관계,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인식하였다. 장애인 평생교육의 개선점에 대한 요구는 '장애인에 게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 확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의 확충', '편의시설 혹은 설비(통학 차량, 통학비 등의 통학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설립',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보급과 전문인력 양성' 등이 있었다.

2. 장애인 생활만족도

가. 생활만족도의 정의

평생교육을 포함하는 모든 교육이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일치된 목표는

궁극적으로 '삶의 질(Quality of Life)' 향상이다. '삶의 질' 향상은 단순히 물리적 풍요만으로도 평가가 아닌 인간이 느끼는 일상생활의 개인적 만족감과 관련된 생활의 질에서 주관적으로 양적·질적인 생활만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주관적이면서 생활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느끼는 심리적 안녕감을 의미하는 생활만족도는 한 개인이 느끼는 인생 전체에서의 행복·만족 정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오명란, 김경신, 2015).

생활만족도에 관련된 선행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전반적 생활의 만족이라는 개념'의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 삶의 질(quality of life), 행복(Happiness),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등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다루어지고 있다(박자경, 2009). 아울러, 생활만족도에 대한 의미를 여러 학자에 의한 자기 주안점을 기준으로 정의를 하였는데, 생활만족도라는 개념의 최초 사용자로 알려지는 Neugarten et al.(1961: 탁기주, 2010에서 재인용)은 노인의 생활만족도 척도를 처음으로 개발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매일의 생활 구성의 활동으로부터 기쁨 느낌, 스스로 생활에 대한 의미와 책임감의 느낌, 주위환경에 효율적인 좋은 대응으로 사회적·정서적 어려움 없이 개인의 욕구 충족을 가능하게 시킬 수 있는 정도라 한다.

Medley(1976: 박경애, 2015에서 재인용)는 개인의 정신건강에 관한 결정의 중요한 요소로써 생활만족을 파악하였으며, 다른 사람들과의 생활만족도 비교를 통해 자신의 평가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것은 개인에 대한 기대의 합리적인 충족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보았다.

우리나라에서 학술적으로 최초로 사용한 이효재(1979: 이미연, 2005에서 재인용)는 일상적인 활동에서 기쁨의 얻음이 가능하고 의미 있게 자신의 생애를 받아들이며 대체로 행복함을 느끼는 낙관적인 태도와 기분의 유

지가 가능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한다.

Frey & Stutzer(2000: 강성진, 2010에서 재인용)는 개인이 느끼는 생활만족이 첫째, 개인적 요소로서 신경성(neuroticism)의 특성, 낙천성, 자부심(self-esteem) 등에 의해 결정이 되고, 둘째, 인구사회학적 요소로서 성별, 결혼 여부, 나이, 교육의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 셋째, 경제적 요소로서 실업, 개별 혹은 집합적 소득, 인플레이션 등에 의해 결정되고, 넷째, 상황 요소로서 특정한 고용상태나 노동현장에서의 스트레스, 배우자와의 관계, 친구·직장동료·친척들과의 인간적 관계 등에 의해 결정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제도적 변수로서 각 개인의 정치적 민주주의 성숙 정도, 직접적인 정치참여 정도 등을 포함한다.

장순용, 김송희(2003)는 생활만족은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써 개인의 기준에 따라 주관적으로 평가가 되는 스스로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하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한다.

손환, 방선희(2010)는 생활만족은 일상생활의 영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감정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서적인 안정, 긍정적인 사고, 심리적인 만족감이라 할 수 있다고 한다.

어재석, 정광령(2013)은 생활만족은 '삶의 질' 향상의 중요한 변인으로써 '개인의 삶'에 대한 기쁨, 생활의 긍정적 자아상의 형성, 자신의 가치 인식, 낙천적인 감정·태도의 유지 등이라 한다.

이중섭(2009)은 생활만족이 삶의 주관적 특성에 관한 매우 중요한 하나의 부분으로 희망·기대와 같은 일련의 가치와 관련이 된 자기 삶의 다양한 조건들에 대한 주관적 인식으로 정의한다고 한다.

고민석, 김동주(2014)는 생활만족은 합리적 방법으로 개인의 수준 및 기대가 충족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평가이면서 절대적인 사실보다는 오히려 주관적, 상대적인 개념으로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이라 한다.

나. 장애인 생활만족도

일반적인 생활만족도를 구성하는 영역이 장애인의 생활만족도 영역에서도 어느 정도 같게 적용이 가능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먼저 생활만족도를 구성하는 구성영역이 비슷하지만, 장애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영역별의 중요도는 다를 수가 있다는 견해다. 이에 장애인의 생활만족도를 어느 정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공통적인 특성, 장애 고유 특성 등을 고려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박자경, 2009).

장애인의 생활만족도는 가족을 포함한 사회적 지원, 경제적·사회적 자립에 대한 높은 수준의 기능 정도, 심리적·의료적 보호를 받을 권리 등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어야만 한다(김자영, 한창근, 2016a; 박수경, 2008). 장애인의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사회에서의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음을 쉽게 예측할 수는 있으나 생활만족도가 낮다는 것은 자신이 체감하는 생활 수준·안녕감이 낮음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박자경, 2009). 그러한, 장애인의 생활만족도는 포괄적 영역이면서도 삶에 대한 다양한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생활·환경 측면, 신체·건강 측면, 사회적인 측면과 가족,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 여가활동 등의 구체적인 영역들까지도 포함하려고 한다. 그러나, 장애인 삶의 전반적인 질과 만족도를 증가를 위해서 경제활동 참여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있음을 말하고 있지만(보건복지부, 2014), 장애인 중의 일부는 복지급여(주거·의료급여 삭감)의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경제활동 참여를 못 하는 현상도 있다(에이블뉴스신문, 2023.02.21).

한편, 장애인에 대한 생활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특정 성별(고민석, 김동주, 2014; 김승완, 2018; 김필호, 노충래, 2022;

박미량 외, 2013; 오명란, 김경신, 2015)이나 나이(박주영, 2018; 박주영, 오혜경, 2013; 서원선, 이수용, 2017), 특정 장애유형(김미애, 김성희, 2014; 김진숙, 이혜자, 2013; 김혜경, 2017; 이은일, 2022), 여가활동(김철진, 2015; 박종빈, 백영은, 2022; 송진영, 2021; 오수경, 2019; 이동진 외, 2010; 정경희 외, 2014) 등의 연구가 대다수를 이루었다.

이와 함께, 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이 존재하는데, 사회·심리적 요인(자기 결정력, 장애인 차별), 신체적 요인(건강), 경제적 요인(경제활동 참여, 경제적 여건), 사회관계 요인(여가생활, 사회활동 참여, 사회적 지지), 환경적 요인(근로여건 및 환경, 소속감), 장애정도 및 유형(동료와의 관계), 장애인의 성별(여성장애인) 등이 있다. 이처럼 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분석은 다음과 같다.

한승길(2013)은 장애수용, 사회통합(소비성, 편리성, 참여성)요인, 주관적 건강, 장애차별, 경제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서적 지지), 일상생활능력(ADL), 소득수준이 있다고 한다.

김영수, 윤수인(2019)은 인구학적 요인(연령대가 낮을수록, 배우자가 있는 경우, 여성일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등), 사회적 요인(차별 경험이 없을수록, 사회활동에 참여할수록 등), 경제적 요인(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가 적을수록, 가구 총소득이 높을수록, 외식비 지출이 많을수록, 총생활비 지출이 많을수록), 건강요인(규칙적인 식사의 경우,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운동하는 경우) 등이 생활만족도 수준을 더 높게 함이 나타났다.

전명숙(2018)은 취업 여부가 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게 하는 요인으로 밝혀졌고, 그 밖의 사회관계 요인, 신체적 요인, 경제적 요인도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미

취업 장애인은 취업 장애인의 생활만족도 영향요인과 더불어 인구학적 요인의 나이, 신체적 요인, 성별에 따른 장애 등급 및 장애 기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증장애 또는 여성 고령자일 경우 취업수준은 더욱 낮게 형성되고 있다고 한다.

김은주(2017)는 고령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요인으로서 인구사회학적 요인(성별, 결혼상태, 최종학력, 장애정도), 일상생활요인(건강상태, 도움 필요), 경제적 요인(경제활동 상태, 주관적 계층의식, 집 소유), 심리·사회적 요인(노후준비, 차별 경험, 종교보유)이 있었고, '배우자의 유무, 일상생활 시의 건강관리 및 생활편의'가 고령 장애인 생활만족도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종화(2015)는 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주거 환경 요인, 복지인지 요인, 장애와 건강요인, 차별요인, 여가문화·사회경제 요인 등이 있고, 장애인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장애인의 권리확대, 자립생활, 재활 등을 향상하게 시키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최재남(2010)은 교육 정도가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한다.

백은령(2003)은 개인 요인과 환경요인으로 구분해서, 나이, 성별, 교육정도, 수입, 직업, 결혼상태, 인종, 사교·레저활동, 자아존중감, 종교 등을 포함하는 개인 요인과 이웃과의 관계와 지지적 태도, 사회적 자원(공식, 비공식적 자원), 가족과의 관계, 장애인이 느끼는 비장애인의 인식, 친구와 직장 동료와의 관계와 지지적 태도, 지지 모임 등이 포함되는 환경요인이 있다고 한다.

조상은(2022)은 발달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일상생활 스트레스는 유의

미한 부적 영향을 미쳤고,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월평균 균등화, 고소득은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지각한 한국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수준은 발달장애인이 그들의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환경요인 중에서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유의미한 조절의 효과를 보여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수준은 높게 나타나서 일상 생활 스트레스가 생활만족도에 미치게 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킴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생활만족도를 향상하게 시키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이 스트레스를 경험할 상황을 줄이고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수준을 높여서 스트레스를 경험하더라도 생활만족도에 대한 영향을 감소시키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가구소득을 높여 가구소득이 어느 정도는 재정적 자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지각한 한국사회의 장애 차별이 낮아질 수 있도록 실천적·제도적 지원이 필요로 하다.

강성구, 임경원(2017)은 장애인의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를 예측할 수 있는 주요한 변인은 '장애인 이해·수용, 일의 내용, 복리후생'이었으며, 일상의 생활만족도를 예측하는 주요한 변인은 '하는 일, 여가활동'이었다. 또한, 장애인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경제활동에 관련한 참여'뿐만 아니라 '여가활동, 사회참여 등 다양한 비경제활동에도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고용·교육·복지 분야 전반에 걸쳐지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로 함을 시사했다.

3.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와 생활만족도의 관계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에 대한 전반적인 내적 인식·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가 '삶의 질, 학습성과' 정도만이 검색될 정도로 전체적인 누적연구가 부

족하지만(김두영, 2021; 전리상, 2022; 조창빈 외, 2022), 발표된 문헌 연구를 통해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그 문헌연구는 다음과 같다.

조창빈 외(2022)는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만족도에서는 '강사 > 내용 > 운영시설'의 순이었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학습성과는 '개인영역 > 사회영역 > 직업영역'의 순으로 예상했던 유의미한 결과를 파악했다. 이를 통해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발전 방안으로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만족도 및 학습성과를 조사할 수 있는 표준화된 조사 도구 개발', '국가 차원의 일반·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나 시설 선진화 사업 추진', '장애성인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체 연계형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개발·운영'을 제시하였다.

전리상(2022)은 장애성인 평생교육의 참여에 관한 경험 여부에 따라 평생교육의 성과에 대한 인식의 정도와 삶의 질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의 결과가 나타났다. 정책적으로 장애인들에게 평생교육의 중요성과 효용성을 평생교육 참여의 효과를 통해서 홍보하기를 교육 당국과 장애인 관련 시설·단체 등에 권고했다.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의 성과와 관련된 연구가 부족하지만, 평생교육만큼이나 사회참여로 인한 삶의 주관적·심리적·사회적 의욕을 고양하거나 공동체 통합의 원동력으로 만드는 '여가활동의 참여'의 경우와 장애인의 건강적인 면과 비슷하게 신체적·인지적 부분에서의 약점(노화로 학습활동의 어려움)을 겪는 교육 취약계층에 속하는 '노인의 평생교육 참여'의 경우를 비교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와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유의미한 유추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으므로 '여가활동의 참여'와 '노인의 참여'에 대한 연구를 시행해 보았다.

첫째, 장애인의 여가활동 참여와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장

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와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장애인의 여가활동 참여와 생활만족도에 관련한 연구사례들을 분석해 보았다. 그 문헌연구는 다음과 같다.

전근성(2022)은 COVID-19 전후 시점에 따라서 장애인의 여가 사회활동·생활만족도·행복 간의 변화에 대한 관계, 독거 여부에 따른 조절 효과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여가 사회활동의 감소가 생활만족도의 감소로 이어지며 행복 역시 감소가 되었고, 독거 장애인일 때 이런 경향이 더욱 커졌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장애인의 삶에 중요한 보호 요인이 될 수가 있는 여가 사회활동이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하여 축소되는 것에 대한 적절한 개입의 방향으로 문화예술 활동 참여, 온라인을 활용한 모임·교육 등의 지원이 필요로 함과 장애인의 사례관리에 관한 진행에서도 정신건강의 스크리닝이나 독거 장애인 등에 적절한 개입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전지혜, 남지현(2022)은 근로 장애인의 '생활만족도'를 향상하게 시킬 방안의 제시를 위하여, 소득·건강상태가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소극적·적극적 여가활동의 다중매개 효과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소득·건강상태 높을수록 근로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소득·삶의 만족도 관계, 건강·만족도 관계에서 적극적·소극적 여가활동이 모두 통계적인 결과에서 유의미한 차이로써 부분 매개 효과를 나타냈다. 근로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하게 시키는 방안으로써 소득·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다양한 여가활동의 개발·확산 노력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김철진(2015)은 장애유형에 따라서 여가활동의 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의 결과로써, 첫째, 장애인의 전체적인 여가활동 참여 정도는 “오락적 여가 > 정적인 여가 > 사회·참여적 여가”의 순, 참

여수준은 ‘매우 낮은 편’(‘TV 보기’처럼 소극적인 실내활동에 대한 참여수준이 최고로 높았음)이었다. 적극적인 신체활동과 관련된 여가활동 부분의 참여수준은 최고로 낮았으며, 장애유형에 따르는 여가활동 부분의 참여 차이(‘지체장애 > 청각·언어장애 > 뇌병변장애’)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둘째, 장애인의 생활만족도 부분은 인간관계 만족도가 최고로 높았으며, 경제 만족도가 최고로 낮았다. 장애유형 부분에 따라서 생활만족도는 비교적 큰 수준의 유의미한 차이(‘청각·언어장애 > 지체장애 > 시각장애’)가 있었다. 셋째, 장애 유형별로 여가활동 참여 부분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검증을 해 본 결과는, 지체 장애인의 경우에는 정적인 여가활동만이 사회·여가 만족도, 인간관계 만족도, 일·직업 만족도, 자율성·자아감 만족도, 행복감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각·언어장애인의 경우에는 정적인 여가활동 부분이 자율성·자아감 만족도에, 문화·예술적 여가활동 부분이 사회·여가활동 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여행과 관련 여가참여 부분은 인간관계의 만족도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사회참여 여가활동만이 행복감, 일·직업 만족도, 자율성·자아감 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가 장애유형에 따라 다르게 계획·개발될 필요성을 제언했다.

박종빈, 백영은(2022)은 임금 근로 장애인의 여가활동 경험과 생활만족도와 관계에서 직무만족도가 매개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의 장애인고용패널조사의 조사 데이터 사용과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활용하여 매개효과의 유의도에 대해 검증하였다. 연구의 결과로는 임금 근로 장애인의 여가활동 경험은 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 직무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나타났고, 임금 근로 장애인의 여가활동 경험과 생활만족도와 관계에서 직무만족도는 부분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써 임금 근로 장애인의 여가활동 경험의 다양화·활성화를 위하여 여가활동의 촉진이 가능할 방안과 여가활동 촉진을 위한 장애를 고려하는 시설의 확충·다양화를 제안하며, 임금 근로 장애인의 여가활동 경험, 직무만족도,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증명함으로써 임금 근로 장애인의 여가활동 촉진, 직무만족도 및 생활만족도의 향상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장애인의 여가활동 참여로 인한 생활만족도에 관한 결과는 여러 문헌연구를 통해서 유의미한 성과가 나타났으므로, 이것을 토대로 유추하면 평생교육만큼이나 사회참여로 인한 삶의 주관적·심리적·사회적 의욕을 고양하거나 공동체 통합의 원동력으로 만드는 '여가활동의 참여'에 관한 경우처럼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많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둘째, 같은 교육 취약계층에 속하는 노인의 평생교육 참여와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와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대해서도 유추할 수 있으므로 노인의 평생교육 참여와 생활만족도에 관련한 연구사례들을 분석해 보았다. 그 문헌연구는 다음과 같다.

국윤경(2018)은 노인의 일반적인 특성이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노인대학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를 통한 생활만족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로는 노인의 일반적 특성은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노인대학의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서도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노인대학 활성화 방안으로는 노인대학 이용자의 일반특성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교육 교재의 필요성, 지적·사회적·문화적 측면의 균형이 있는 교육 프로그램(동

아리 모임, 취미활동, 관심 영역별 모임)의 준비, 직업훈련 프로그램(직업 상담, 고용알선 등)의 운영, 노인대학 전문 담당자·분야별 전문 강사의 양성, 평생교육 차원의 정부의 적극적 재정 지원과 민간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윤영배, 유준호(2019)는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서 생활만족도·죽음 불안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해 보고, 음악 활동의 참여 여부에 따라서 시니어들에 대한 생활만족도·죽음 불안의 차이가 나타남을 증명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었다. 과거·현재·미래의 생활만족도 모두에서 시니어들의 생활만족도는 나이, 주관적 경제 수준, 학력, 가족 구성,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죽음 불안은 성별, 가족 구성, 나이, 학력, 주관적 경제 수준,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시니어들의 생활만족도는 음악 활동에 참여한 분들이 음악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도 나타났다. 죽음 자체에 대한 두려움에는 음악 활동의 참여 여부와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죽음과 연관되는 사건에 대한 두려움은 음악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시니어들이 더욱 높은 결과가 나타났음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분석되었다.

허영주(2016)는 2014년도에 실시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의 '한국복지패널 9차연도 조사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나이대, 건강상태, 연간 경상소득은 노인에 대한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지만, 거주지역, 성별에 따른 생활만족도에는 차이가 없음을 알 수가 있었다. 노인의 평생교육은 참여율이 0.038%에 불과하고, 문화생활교육 중심으로는 가족관계, 여가생활, 사회적 관계 향상에 도움을 주었지만, 취·창업교육에서는 수입 창출로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었다. 노인 대상의 평생교

육 일반화를 위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 개발·제공, 노인세대의 나이대·건강상태·소득수준에 따른 차별화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제공, 나이대·소득수준의 복합적인 고려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제언하였다.

권시연(2019)은 노인의 고독감 및 생활만족도에 노인체조프로그램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증명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노인체조프로그램은 노인이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를 통한 신체 건강·사회적 지지 얻고, 사회적 관계의 역할상실에서 오는 고독감 또는 대인관계 축소로 인한 소외감을 해소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또한, 노인체조프로그램은 과거·현재·미래의 심리적인 안정감, 삶의 활력소가 됨으로써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나타냈다. 노인의 욕구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죽음준비 교육 프로그램(well dying program), 짝을 잃은 슬픔 극복 프로젝트 등과 같은 프로그램 진행이 필요로 하고, 노인의 생활만족감을 해소·증진할 수 있는 실제적인 프로그램을 통한 행복한 노후의 설계가 가능할 수 있는 제도적인 체계가 마련되기를 제언하였다.

노인의 평생교육 참여로 인한 생활만족도에 관한 여러 문헌연구를 통하여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으므로, 이것의 결과를 통해서 유추하면, 같은 교육 취약계층에 속하는 노인의 평생교육 참여에 관한 경우처럼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가 생활만족도에도 많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던 비장애인 대상, 참여목적, 만족도, 여가활동의 참여, 노인의 평생교육 참여 등의 여러 문헌연구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분석·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교육 참여가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는 비장애인 대상의 선행연구에서도 알 수 있다(김현규, 2020; 김홍록, 201

5; 안수인 외, 2011; 지정례, 2013; 최운실, 2006; 최채은, 2012; 황지혜, 2010).

둘째, 장애성인은 평생교육에 참여 목적(사회참여 기회 확대, 여가 활용, 대인관계 향상 등)(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2020),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김두영, 김미아, 2015; 김미아, 2017; 김미영 외, 2019; 서유경 외, 2022; 정현아, 2020; 조창빈 외, 2021), 그리고, 평생교육 참여에 대한 전반적인 내적인 인식·만족도(김두영, 2021; 전리상, 2022; 조창빈 외, 2022)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셋째, 장애성인 '여가활동의 참여'의 선행연구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김소영, 2014; 김철진, 2015; 김학천, 2017; 박종빈, 백영은, 2022; 이중섭, 2010; 전근성, 2022; 전지혜, 남지현, 2022; 정병두, 2019; 정연성, 2012; 정연홍, 2013; 최희철 외, 2019).

넷째, 같은 교육 취약계층에 속하는 노인의 평생교육 참여에 따른 생활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의 경우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국윤경, 2018; 권시연, 2019; 김동배 외, 2012; 김종식, 임왕규, 2014; 윤영배, 유준호, 2019; 최현동, 2018; 허영주, 2016).

그러므로, 여러 선행연구(문헌연구)를 토대로 해서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참여가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확률이 아주 높을 것으로 유추·예측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성인이다. 이들 중에서 부산 지역에 소속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협회 등의 장애인 관련 시설·단체를 이용하면서 평생교육을 경험한 17세 이상의 장애성인 213명을 표집하였으며, 최종 분석에서 사용된 연구대상은 207명이다.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Ⅲ-1>과 같다. 성별에서 여성(51.7%)이 남성(48.3%)보다 3.4% 많고, 나이는 가장 많은 17세~39세(35.3%)가 가장 적은 40세~59세(31.4%)보다 3.9% 많았다. 장애유형은 가장 많은 지체·뇌병변 장애(45.4%)는 가장 적은 내부기관 장애(5.3%)보다 40.1% 많고, 장애정도는 심한 장애(68.1%)가 심하지 않은 장애(31.9%)보다 36.2% 많았다. 보행방법은 스스로 보행(53.6%),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45.4%), 직업은 없다(69.6%)가 가장 많았다.

<표 Ⅲ-1> 연구대상의 특성 (N=207)

(단위: 명, %)

	변인	빈도	%
성별	남성	100	48.3
	여성	107	51.7
나이	17세~39세	73	35.3
	40세~59세	65	31.4
	60대 이상	69	33.3

장애 유형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94	45.4
	시각·청각·언어·안면 장애	39	18.8
	발달장애, 정신장애	51	24.6
	내부기관 장애	11	5.3
	중복장애	12	5.8
장애 정도	심한 장애	121	68.1
	심하지 않은 장애	86	31.9
보행 방법	스스로 보행	111	53.6
	휠체어, 목발 등	61	29.5
	도우미 도움	35	16.9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5	7.2
	중학교 졸업	51	24.6
	고등학교 졸업	94	45.4
	대학 졸업 이상	47	22.7
직업 유무	있다	63	30.4
	없다	144	69.6

2. 측정 도구

가. 평생교육 참여 척도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의 측정을 위해서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는 측정 도구로써 장애인 대상으로 연구된 조창빈 외(2018a)의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실태’ 측정 도구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측정 도구는 크게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평생교육 참여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성별, 나이, 장애 유형, 장애정도, 보행방법, 학력, 직업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나이는 ① 17세~39세, ② 40세~59세, ③ 60대 이상, 장애 유형은 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②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③ 발달장애, 정신장애, ④ 내부기관 장애(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⑤ 중복장애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정도는 ① 심한 장애, ② 심하지 않은 장애, 보행방법은 ① 스스로 보행, ② 휠체어, 목발, 도구 이용 등, ③ 도우미(활동지원사, 자원봉사자 등) 도움, 학력은 ① 초등학교 졸업 이하,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대학 졸업 이상, 직업은 ① 있다, ② 없기로 구성되어 있다.

평생교육 참여는 참여영역, 참여경험, 참여기관 참여목적, 참여만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여영역은 ① 기초문해교육(한글문해교육, 생활문해교육, 기초자립교육), ② 학력보완교육(초등학력보완, 중등학력보완, 고등학력보완), ③ 직업능력향상교육(기초직업교육, 전문직업교육, 자격인증교육), ④ 문화예술교육(여가 스포츠, 문화예술향유, 문화예술숙련), ⑤ 인문교양교육(사회재활교육, 생활소양교육, 인문학적교양), ⑥ 시민참여교육(시민의식교육, 시민역량교육, 시민활동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여경험은 ① 강사강좌, ② 직업훈련, ③ 원격강좌, ④ 학습동아리, ⑤ 개인교습, ⑥ 세미나 및 워크숍으로, 참여기관은 ① 평생교육법 등록기관, ② 주민자치센터, ③ 지역 도서관, ④ 사회복지관, ⑤ 문화예술 시설, ⑥ 노인관련 시설, ⑦ 장애인복지관, ⑧ 지역사회 재활 시설, ⑨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⑩ 장애인 야학, ⑪ 여성관련 시설, ⑫ 청소년관련 시설, ⑬ 직업교육 시설, ⑭ 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참여목적은 ① 직업과 관련, ② 건강, ③ 심리적 만족 및 행복감, ④ 지식 습득 등 자기 계발, ⑤ 시민의식 증진 및 사회참여, ⑥ 친목 도모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의 목적을 반영하여 다중응답이 가능한 문항으로 선택된 하위 문항의 경우에는 각각 '1'

로 코딩하고, 선택이 되지 못한 경우는 '0'으로 코딩하여 더미형 변수의 형태를 보이는 양적 변수로 변화하였다. 참여만족은 Likert형 5점 척도(① 매우, 도움이 되었다~⑤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채점하여 분석에 사용되었다. 문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I-2>와 같다.

〈표 III-2〉 독립변수의 설문지 구성

구분	세부내용(문항 수)			문항 번호	총 문항 수	
독립 변수	인구사회학적 척도	성별(1)		1-1	7	
		나이(1)		1-2		
		장애유형(1)		1-3		
		장애정도(1)		1-4		
		보행방법(1)		1-5		
		최종학력(1)		1-6		
		직업유무(1)		1-7		
	평생교육 참여 척도	다중 응답 코딩	참여영역(1)	0	2-1	5
			참여방법(1)	or	2-2	
			참여기관(1)	1	2-3	
			참여목적(1)	코딩	2-4	
			참여만족(1)		2-5	

나. 생활만족도 척도

본 연구에서는 '생활만족도'의 측정을 위해서 양옥경(1994)의 '삶의 만족 측정을 위한 척도' 측정 도구를 재구성하고, 장애인·노인 등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용한 조혜숙(2003)의 '생활만족도'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생활만족도 척도는 '의식주 영역 3문항, 신체·정신건강 영역 3문항, 일·

경제 영역 2문항, 사회·여가생활 영역 2문항, 행복감 영역 2문항, 자아감 영역 2문항 등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형 5점 척도(① 전혀, 아니다~⑤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생활만족도 척도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Cronbach's α 계수는 .892~.901로 나타났으며, 전체 Cronbach's α 계수는 .903으로 나타나 문항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문항의 구체적인 내용 및 신뢰도 계수는 <표 III-3>과 같다.

〈표 III-3〉 종속변수의 설문지 구성

구분	세부내용(문항 수)		문항 번호	신뢰도	
종속 변수	생활 만족 도	의식주 영역	현재 살고 있는 곳에 대한 만족 수준(1)	3-1	.900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에 만족 수준(1)	3-2	
			일상적으로 입는 옷에 대한 만족 수준(1)	3-3	
	신체· 정신건강 영역	신체· 정신건강 영역	심리적 상태(1)	3-4	.894
			신체적 건강 상태(1)	3-5	
			정신적 건강 상태(1)	3-6	
	일·경제 영역	일·경제 영역	일의 욕구(1)	3-7	.899
			한 달 수입 정도(1)	3-8	
	사회생활 영역	사회생활 영역	사회생활의 만족(1)	3-9	.897
			하루를 보내는 방법의 만족(1)	3-10	
	행복감 영역	행복감 영역	현재 삶의 만족(1)	3-11	.894
			현재의 행복감(1)	3-12	
	자아감 영역	자아감 영역	자신의 가치에 대한 느낌(1)	3-13	.898
			자신에 대한 만족(1)	3-14	
				.903	

3. 자료수집

본 연구는 문헌 조사를 기초로 하여 연구내용에 맞는 조사항목을 설정하고 표준화된 자기 기재방법의 설문지를 사용하여 2022년 12월 12일부터 2023년 1월 20일까지 연구와 관련한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 대상기관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 협조를 부탁하고, 직접 전달하거나 혹은 이메일로 설문지 파일을 배부하거나 각 조사 대상기관에 도우미 2명과 직접 방문하여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이 설문 조사는 장애인 평생교육 담당자의 협조와 학습자의 상태에 따라서 자기 가입식의 설문 조사(스스로 설문지 기재가 가능), 1:1 대면 면접방식의 설문 조사(글자 해독능력·이해능력의 부족, 시력 약화 등의 이유로 스스로 기재할 수 없는 경우), 인터넷 설문 조사(대면이 힘든 경우)를 병행하여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참여 조사, 생활만족도 조사, 평생교육 참여와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조사를 20분 이하의 소요 시간이 되도록 시행하였다.

모든 설문 조사는 해당 기관이 허락하는 범위와 장애인 당사자의 사전동의 하에서만 시행하였다. 또한, 조사 시점이 12월 중순~1월 중순이라서 기관별로 교육이 끝나거나 시작을 기다리는 시점이었고, 강력한 추위로 인한 출석률의 부족으로 설문 조사의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시행되었다.

각각의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협회 등을 이용하는 장애성인에게서 회수된 설문지는 모두 213부였다(대면 설문 조사 125부, 인터넷 설문 조사 88부). 이 가운데서 부실한 기록이거나 성실하지 못한 내용의 설문지 6부를 제외하고, 연구 분석에서 실제로 사용된 설문지는 207부이다.

4. 자료처리

본 연구는 설문 조사를 이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SPS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측정 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장애성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요 변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술통계, 다중반응 빈도분석, 빈도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셋째, 장애성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 생활만족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반응 교차분석, 교차분석(χ^2), 독립표본 t검정(*t-test*),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 사후검증(Scheffé) 등을 실시하였다.

넷째,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와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참여가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더미 변수를 활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변인의 기술통계

본 연구는 207명의 장애성인 응답자들의 평생교육 참여와 생활만족도 변인에 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인의 평균(M)을 살펴보면, 참여만족(M=4.329)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참여영역(M=.322), 참여목적(M=.308), 참여방법(M=.240), 참여기관(M=.12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활만족도의 하위영역에서는 의식주(M=3.717)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아감(M=3.575), 행복감(M=3.575), 신체·정신 건강(M=3.540), 사회생활(M=3.493), 일·경제(M=3.075)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기술통계의 결과는 <표 IV-1>에 제시하였다.

<표 IV-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N=207)

구분	변인	M	SD	
독립 변인	평생교육 참여	참여영역	.322	.166
		참여방법	.240	.125
		참여기관	.129	.057
		참여목적	.308	.133
		참여만족	4.329	.823
종속 변인	생활 만족도	의식주	3.717	.822
		신체·정신 건강	3.539	.847
		일·경제	3.075	1.029
		사회생활	3.493	.858
		행복감	3.575	.861
		자아감	3.575	.897

2. 평생교육 참여

평생교육의 참여영역, 참여방법, 참여기관, 참여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위하여 다중반응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IV-2>에 제시하였다.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영역은 문화예술교육(29.0%)이 가장 높았고, 직업능력향상교육(16.8%), 기초문해교육(15.5%)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참여방법은 강사강좌(47.7%)가 압도적으로 가장 높았고, 직업훈련(16.4%), 학습동아리(14.8%)의 순으로 높았다. 또한, 참여기관은 장애인복지관(38.9%)이 가장 높았고, 사회복지관(18.9%), 장애인 자립생활센터(16.8%)의 순으로 높았다. 아울러, 참여목적은 심리적 만족 및 행복감(23.3%)이 가장 높았고, 지식 습득 등 자기 계발(22.3%), 건강(17.5%)의 순으로 높았다.

<표 IV-2> 평생교육 참여실태(다중답변)

(단위: 명, %)

다중 답변	변인	빈도	%
참여 영역	기초문해교육	62	15.5
	학력보완교육	42	10.5
	직업능력향상교육	67	16.8
	문화예술교육	116	29.0
	인문교양교육	58	14.5
	시민참여교육	55	13.8
참여 방법	강사강좌	142	47.7
	직업훈련	49	16.4
	원격강좌	28	9.4
	학습동아리	44	14.8
	개인교습	7	2.3
	세미나 및 워크숍	28	9.4

참여 기관	평생교육법 등록기관	10	2.7
	주민자치센터	13	3.5
	지역 도서관	6	1.6
	사회복지관	71	18.9
	문화예술 시설	20	5.3
	노인관련 시설	5	1.3
	장애인복지관	146	38.9
	지역사회 재활 시설	2	0.5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6	1.6
	장애인 야학	13	3.5
	여성관련 시설	8	2.1
	청소년관련 시설	1	0.3
	직업교육 시설	11	2.9
	장애인자립생활센터	63	16.8
참여 목적	직업과 관련	50	13.1
	건강	67	17.5
	심리적 만족 및 행복감	89	23.3
	지식 습득 등 자기 계발	85	22.3
	시민의식 증진 및 사회참여	36	9.4
	친목도모	55	14.4

장애성인의 평생교육의 참여만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IV-3>에 제시하였다.

〈표 IV-3〉 평생교육 참여만족 실태(단일답변)(N=207)

(단위: 명, %)

단일 답변	변인	빈도	%
참여 만족	전혀, 도움 못됨	2	1.0
	조금, 도움 못됨	4	1.9
	보통(모르겠다)	23	11.1
	조금, 도움	73	35.3
	매우, 도움	105	50.7

참여만족은 '매우, 도움'(50.7%)이 압도적으로 가장 높았고, '조금, 도움

‘(35.3%), ‘보통’(11.1%)의 순으로 높았다. 평생교육이 ‘조금, 도움 된다’ 이상의 의사를 보인 응답자 수는 86.0%가 될 정도로 매우 긍정적이다.

참여실태 결과를 정리하면, 본 연구와 1순위 선호도의 결과가 동일한 연구가 많다는 <표 IV-4>의 내용으로 일정 기간 비슷한 양상임을 유추할 수 있다.

<표 IV-4> 참여실태 1순위 선호도가 동일한 연구

1순위 선호도	관련 연구
문화예술 교육	2017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2017), 2021 광주광역시 장애인 평생학습 실태조사(2021), 2019 부산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조사(2순위 ‘직업능력향상교육’까지 동일), 김미영, 정현용(2021), 서유경 외(2022), 전리상(2022), 조창빈 외(2018b)
강사강좌	2017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2017), 2018 광명시 성인장애인 평생학습 실태조사(2018), 2022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조사(2022), 조창빈 외(2018a)
장애인 복지관	2018 광명시 성인장애인 평생학습 실태조사(2018), 2021 광주광역시 장애인 평생학습 실태조사(2021), 김미영, 정현용(2021), 조창빈 외(2018a), 조창빈 외(2018b)
심리적 만족 및 행복감	2017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2017), 조창빈 외(2018a), 조창빈 외(2018b)
매우, 도움 높다	2017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2017), 2018 광명시 성인장애인 평생학습 실태조사(2018), 2018 제주지역 장애인 평생학습 실태조사(2018), 2021 광주광역시 장애인 평생학습 실태조사(2021), 이미현(2017), 전리상(2022), 조창빈 외(2018a)

3. 생활만족도

장애성인의 생활만족도의 하위요인(의식주 영역, 일·경제 영역, 행복감 영역, 신체·정신건강 영역, 사회생활 영역, 자아감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IV-5>에

제시하였다.

〈표 IV-5〉 생활만족도의 수준 (N=207)

변인		M		SD	
의식주 영역	현재 살아가고 있는 그곳의 만족 수준	3.75	3.73	1.025	.972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에 만족 수준	3.68		.974	
	일상적으로 입는 옷에 대한 만족 수준	3.72		.918	
신체· 정신 건강 영역	심리적 상태	3.59	3.54	.955	.993
	신체적 건강상태	3.46		1.042	
	정신적 건강상태	3.56		.983	
일· 경제 영역	일의 욕구	3.12	3.08	1.162	1.186
	한 달 수입 정도	3.03		1.210	
사회 생활 영역	사회생활의 만족	3.46	3.50	.944	.959
	하루를 보내는 방법의 만족	3.53		.974	
행복감 영역	현재 삶의 만족	3.57	3.57	.977	.970
	현재의 행복감	3.57		.962	
자아감 영역	자신의 가치에 대한 느낌	3.55	3.58	1.032	1.003
	자신에 대한 만족	3.60		.974	
(전체) 생활만족도		3.51		1.014	

전체 생활만족도(M=3.51, SD=1.014)는 중간 이상의 만족도 수준으로 영역 중에서는 의식주(M=3.73, SD=.972)가 가장 높고, 일·경제(M=3.08, SD=1.186)이 가장 낮았다. 하부 요인 중에서는 '살아가고 있는 곳의 만족 수준'(M=3.75, SD=1.025), '입는 옷에 대한 만족 수준

'(M=3.72, SD=.918)의 순으로 가장 높았고, '한 달 수입 정도'(M=3.03, SD=1.210), '일의 욕구'(M=3.12, SD=1.162)의 순으로 가장 낮았다.

장애성인은 일·경제 영역(M=3.08, SD=1.162), 사회생활 영역(M=3.50, SD=.959)의 순으로 가장 낮았는데, 이는 장애인의 제한되고 한정된 경제생활 및 사회생활과 관계가 깊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 차이

장애성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 차이를 평생교육 참여의 하위요인(참여영역, 참여방법, 참여 기관, 참여목적, 참여만족)별로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반응 교차분석 및 χ^2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참여영역 차이

성별에 따른 참여영역에서는 남성·여성 모두가 문화예술교육이 가장 높았다. 남성은 문화예술교육(25.5%), 직업능력향상교육(16.2%), 기초문해교육(13.7%)의 순으로 높았다. 여성은 문화예술교육(31.4%), 직업능력향상교육(16.7%), 기초문해교육(16.7%)의 순으로 높았다.

나이에 따른 참여영역에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문화예술교육이 가장 높았다. 17세~39세는 문화예술교육(20.6%), 직업능력향상교육(16.7%), 기초문해교육(14.7%)의 순으로 높았다. 40세~59세는 문화예술교육(20.6%), 직업능력향상교육(11.3%), 인문교양교육(11.3%)의 순으로 높았다.

다. 60대 이상은 문화예술교육(20.6%)이 가장 높았고, 다른 세대에는 2위권이었던 직업능력향상교육(4.9%)이 가장 낮았다. 이는 60세 이상에서는 직업에 관한 관심이 떨어지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장애유형에 따른 참여영역에서는 연구대상 전체에서 적은 비율을 차지하는 내부기관 장애(5.4%)와 중복장애(5.9%)를 제외하고, 문화예술교육이 가장 높았다. 지체·뇌병변 장애에서는 문화예술교육(26.5%), 인문교양교육(14.7%), 시민참여교육(12.7%)의 순으로 높았고, 시각·청각·언어·안면 장애에서는 문화예술교육(26.5%), 직업능력향상교육(6.4%), 학력보완교육(6.4%)의 순으로 높았다. 발달·정신 장애에서는 문화예술교육(17.2%), 기초문해교육(16.2%), 직업능력향상교육(11.8%)의 순으로 높았다. 내부기관 장애는 전체(5.4%)에서 모든 영역이 비슷했고, 중복장애는 전체(5.9%)에서 학력보완교육(2.5%)이 가장 높았다. 이는 발달·정신 장애에서 2위권이 '기초문해교육'인 점은 장애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가 있다.

장애정도에 따른 참여영역에서는 모두 문화예술교육이 가장 높았다. 심한 장애에서는 문화예술교육(40.7%), 직업능력향상교육(23.5%), 기초문해교육(21.6%)의 순으로 높았다. 심하지 않은 장애에서는 문화예술교육(16.2%), 직업능력향상교육(9.3%), 기초문해교육(8.8%)의 순으로 높았다.

보행방법에 따른 참여영역에서는 모두 문화예술교육이 가장 높았다. 스스로 보행에서는 문화예술교육(32.8%), 기초문해교육(21.1%), 직업능력향상교육(20.6%)의 순으로 높았다. 휠체어, 목발 등에서는 문화예술교육(17.2%), 시민참여교육(9.8%), 직업능력향상교육(6.9%)의 순으로 높았다. 도우미 도움에서는 문화예술교육(6.9%), 인문교양교육(6.4%), 학력보완교육(5.9%)의 순으로 높았다.

학력에 따른 참여영역에서는 모두 문화예술교육이 가장 높았다. 초등 졸업 이하에서는 문화예술교육(4.9%), 시민참여교육(2.0%), 기초문해 교육(1.5%)의 순으로 높았다. 중학교 졸업에서는 문화예술교육(11.3%), 학력보완 교육(11.3%), 직업능력 향상 교육(6.9%)의 순으로 높았다. 고등학교 졸업에서는 문화예술교육(28.4%), 기초문해교육(18.1%), 직업능력향상교육(18.1%)의 순으로 높았다. 대학졸업 이상에서는 문화예술교육(12.3%), 인문교양교육(8.3%), 시민참여교육(8.3%)의 순으로 높았다.

직업유무에 따른 참여영역에서는 모두 문화예술교육이 가장 높았다. 직업이 있다에서는 문화예술교육(16.7%), 직업능력향상교육(11.8%), 시민참여교육(11.8%) 직업이 없다에서는 문화예술교육(40.2%), 기초문해교육(23.5%), 직업능력향상교육(21.1%)의 순으로 높았다.

나이(.005 < .05), 장애유형(.035 < .05)에 따라 참여영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요인들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IV-6>와 같다.

〈표 IV-6〉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참여영역 차이

(단위: 명, %)

변인	빈도(%)							x ² (p)	
	기초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향상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	시민참여교육	전체		
성별	남성	28 (13.7)	22 (10.8)	33 (16.2)	52 (25.5)	25 (12.3)	26 (12.7)	99 (48.5)	7.655 (.264)
	여성	34 (16.7)	20 (9.8)	34 (16.7)	64 (31.4)	33 (16.2)	29 (14.2)	105 (51.5)	
나이	17세~39세	30 (14.7)	16 (7.8)	34 (16.7)	42 (20.6)	19 (9.3)	19 (9.3)	72 (35.3)	28.515 (.005)
	40세~59세	18 (8.8)	12 (5.9)	23 (11.3)	32 (15.7)	23 (11.3)	22 (10.8)	65 (32)	
	60대 이상	14 (6.9)	14 (6.9)	10 (4.9)	42 (20.6)	16 (7.8)	14 (6.9)	67 (32.6)	
지체·뇌병변장애	18 (8.8)	14 (6.9)	25 (12.3)	54 (26.5)	30 (14.7)	26 (12.7)	93 (45.6)		

장애 유형	시각·청각·언어·안면	7 (3.4)	13 (6.4)	13 (6.4)	20 (9.8)	12 (5.9)	8 (3.9)	38 (18.6)	37.911 (.035)
	발달·정신장애	33 (16.2)	7 (3.4)	24 (11.8)	35 (17.2)	10 (4.9)	13 (6.4)	50 (24.5)	
	내부기관장애	3 (1.5)	3 (1.5)	4 (2.0)	3 (1.5)	4 (2.0)	4 (2.0)	11 (5.4)	
	중복장애	1 (0.5)	5 (2.5)	1 (0.5)	4 (2.0)	2 (1.0)	4 (2.0)	12 (5.9)	
장애 정도	심한 장애	44 (21.6)	25 (12.3)	48 (23.5)	83 (40.7)	45 (22.1)	42 (20.6)	140 (68.6)	11.145 (.084)
	심하지 않은 장애	18 (8.8)	17 (8.3)	19 (9.3)	33 (16.2)	13 (6.4)	13 (6.4)	64 (31.4)	
보행 방법	스스로 보행	43 (21.1)	18 (8.8)	42 (20.6)	67 (32.8)	31 (15.2)	24 (11.8)	110 (54.2)	16.952 (.151)
	휠체어, 목발 등	12 (5.9)	12 (5.9)	14 (6.9)	35 (17.2)	14 (6.9)	20 (9.8)	60 (29.6)	
	도우미 도움	7 (3.4)	12 (5.9)	11 (5.4)	14 (6.9)	13 (6.4)	11 (5.4)	33 (16.2)	
학력	초등 졸업 이하	3 (1.5)	2 (1.0)	0 (0.0)	10 (4.9)	1 (0.5)	4 (2.0)	14 (6.9)	22.790 (.199)
	중학교 졸업	14 (6.9)	23 (11.3)	15 (7.4)	23 (11.3)	9 (4.4)	8 (3.9)	51 (25.0)	
	고등학교 졸업	37 (18.1)	13 (6.4)	37 (18.1)	58 (28.4)	31 (15.2)	26 (12.7)	92 (45.1)	
	대학 졸업 이상	8 (3.9)	4 (2.0)	15 (7.4)	25 (12.3)	17 (8.3)	17 (8.3)	47 (23.0)	
직업 유무	있다	14 (6.9)	10 (5.9)	24 (11.8)	34 (16.7)	18 (8.8)	24 (11.8)	63 (30.9)	7.532 (.274)
	없다	48 (23.5)	32 (15.7)	43 (21.1)	82 (40.2)	40 (19.6)	31 (15.2)	140 (69.1)	

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참여방법 차이

성별에 따른 참여방법에서는 모두 강사강좌가 가장 높았다. 남성에서는 강사강좌(35.5%), 직업훈련(14.4%), 학습동아리(9.4%)의 순으로 높았다. 여성에서는 강사강좌(34.5%), 학습동아리(12.3%), 직업훈련(9.9%)의 순으로 높았다.

나이에 따른 참여방법에서는 모든 세대에서 강사강좌가 가장 높았다. 17세~39세에서는 강사강좌(26.1%), 학습동아리(12.3%), 직업훈련(11.09%)의 순으로 높았고, 40세~59세에서는 강사강좌(20.2%), 세미나 및 워크숍(6.9%), 직업훈련(5.4%)의 순으로 높았다. 60대 이상에서는 강사강좌(23.6%), 직업훈련(6.9%), 원격강좌(3.4%)의 순으로 높았다.

장애유형에 따른 참여방법에서는 모두 강사강좌가 가장 높았다. 지체·뇌병변 장애에서는 강사강좌(30.5%), 학습동아리(8.9%), 원격강좌(8.4%)의 순으로 높았다. 시각·청각·언어·안면 장애에서는 강사강좌(13.8%), 학습동아리(3.4%), 직업훈련(3.4%)의 순으로 높았다. 발달·정신 장애에서는 강사강좌(19.2%), 직업훈련(9.9%), 학습동아리(8.4%)의 순으로 높았다. 내부기관 장애와 중복장애에서도 강사강좌가 각각 2.5%, 3.9%로 가장 높았다.

장애정도에 따른 참여방법에서는 모두 강사강좌가 가장 높았다. 심한 장애에서는 강사강좌(50.5%), 학습동아리(18.3%), 직업훈련(16.3%)의 순으로 높았다. 심하지 않은 장애에서는 강사강좌(19.7%), 직업훈련(7.9%), 학습동아리(3.4%)의 순으로 높았다.

보행방법에 따른 참여방법에서는 모두 강사강좌가 가장 높았다. 스스로 보행에서는 강사강좌(38.9%), 직업훈련(15.8%), 학습동아리(11.3%)의 순으로 가장 높았다. 휠체어, 목발 등에서는 강사강좌(21.2%), 원격강좌(6.9%), 학습동아리(6.9%)의 순으로 높았다. 도우미 도움에서는 강사강좌(9.9%), 직업훈련(3.4%), 학습동아리(3.4%)의 순으로 높았다.

학력에 따른 참여방법에서는 모두 강사강좌가 가장 높았다. 초등 졸업 이하에서는 강사강좌(4.4%)가 가장 높았고, 중학교 졸업에서는 강사강좌(17.2%), 직업훈련(10.9%), 세미나 및 워크숍(3.4%)의 순으로 높았다. 고등학교 졸업에서는 강사강좌(31.0%), 학습동아리(14.8%), 직업훈

련(13.8%)의 순으로 높았다. 대학 졸업 이상에서는 강사강좌(17.2%), 원격강좌(6.4%), 세미나 및 워크숍(4.9%)의 순으로 높았다.

직업유무에 따른 참여방법에서는 모두 강사강좌가 가장 높았다. 직업있다에서는 강사강좌(20.3%), 원격강좌(7.9%), 학습동아리(7.9%)의 순으로 높았다. 직업없다에서는 강사강좌(49.8%), 직업훈련(17.7%), 학습동아리(13.4%)의 순으로 높았다.

장애정도(.034 < .05), 학력(.011 < .05), 직업유무(.046 < .05)에 따라 참여방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요인들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IV-7>과 같다.

〈표 IV-7〉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참여방법 차이

(단위: 명, %)

변인	빈도(%)							$\chi^2(p)$	
	강사 강좌	직업 훈련	원격 강좌	학습 동아리	개인 교습	세미나 및 워크숍	전체		
성 별	남성	72 (35.5)	29 (14.4)	16 (7.9)	19 (9.4)	3 (1.5)	14 (6.9)	97 (47.8)	5.871 (.209)
	여성	70 (34.5)	20 (9.9)	12 (5.9)	25 (12.3)	4 (2.0)	14 (6.9)	106 (52.2)	
나 이	17세~ 39세	53 (26.1)	24 (11.8)	11 (5.4)	25 (12.3)	2 (1.0)	7 (3.4)	71 (35.0)	15.431 (.051)
	40세~ 59세	41 (20.2)	11 (5.4)	10 (4.9)	9 (4.4)	4 (2.0)	14 (6.9)	64 (31.5)	
	60대 이상	48 (23.6)	14 (6.9)	7 (3.4)	10 (4.9)	1 (0.5)	7 (3.4)	68 (33.5)	
장 애 유 형	지체·뇌병 변장애	62 (30.5)	16 (7.9)	17 (8.4)	18 (8.9)	4 (2.0)	11 (5.4)	92 (45.3)	16.512 (.418)
	시각·청각· 언어·안면	28 (13.8)	7 (3.4)	6 (3.0)	7 (3.4)	2 (1.0)	7 (3.4)	38 (18.7)	
	발달·정신 장애	39 (19.2)	20 (9.9)	3 (1.5)	17 (8.4)	1 (0.5)	6 (3.0)	50 (24.6)	
	내부기관 장애	5 (2.5)	3 (1.5)	1 (0.5)	2 (1.0)	0 (0.0)	2 (1.0)	11 (5.4)	

	중복장애	8 (3.9)	3 (1.5)	1 (0.5)	0 (0.0)	0 (0.0)	2 (1.0)	12 (5.9)	
장애 정도	심한 장애	102 (50.5)	33 (16.3)	22 (10.9)	37 (18.3)	6 (3.0)	19 (9.4)	139 (68.5)	10.425 (.034)
	심하지 않은 장애	40 (19.7)	16 (7.9)	6 (3.0)	7 (3.4)	1 (0.5)	9 (4.4)	63 (31.5)	
보 행 방 법	스스로 보행	79 (38.9)	32 (15.8)	11 (5.4)	23 (11.3)	2 (1.0)	12 (5.9)	110 (54.2)	13.321 (.101)
	휠체어, 목발 등	43 (21.2)	10 (4.9)	14 (6.9)	14 (6.9)	3 (1.5)	9 (4.4)	61 (30.0)	
	도우미 도움	20 (9.9)	7 (3.4)	3 (1.5)	7 (3.4)	2 (1.0)	7 (3.4)	32 (15.8)	
학 력	초등 졸업 이하	9 (4.4)	3 (1.5)	0 (0.0)	0 (0.0)	0 (0.0)	2 (1.0)	14 (6.9)	25.852 (.011)
	중학교 졸업	35 (17.2)	10 (4.9)	2 (1.0)	6 (3.0)	0 (0.0)	7 (3.4)	51 (26.1)	
	고등학교 졸업	63 (31.0)	28 (13.8)	13 (6.4)	30 (14.8)	5 (2.5)	9 (4.4)	92 (45.3)	
	대학 졸업 이상	35 (17.2)	8 (4.0)	13 (6.4)	8 (3.9)	2 (1.0)	10 (4.9)	46 (22.7)	
직 업 유 무	있다	41 (20.3)	13 (6.4)	16 (7.9)	16 (7.9)	3 (1.5)	12 (5.9)	63 (31.0)	9.708 (.046)
	없다	101 (49.8)	36 (17.7)	12 (5.9)	27 (13.4)	4 (2.0)	16 (7.9)	139 (69.0)	

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참여기관 차이

성별/나이에 따른 참여기관은 모두 G(장애인복지관)이 가장 높았고, D(사회복지관), O(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높았다. 남성에게는 G(31.2%), O(17.6%), D(16.1%)의 순으로 높았고, 여성에게는 G(40.0%), D(18.5%), O(13.2%)의 순으로 높았다. 17세~39세에게는 G(23.4%), O(9.8%), D(8.8%)의 순으로 높았고, 40세~59세에게는 G(21.0%), O, D(11.7%)의 순으로 높았으며 60대 이상에게는 G(26.8), D(14.1%), O(9.3%)의 순으로 높았다.

장애유형에 따른 참여기관은 모두 G(장애인복지관)이 가장 높았고, D(사회복지관), O(장애인자립생활센터)도 높았다. 지체·뇌병변 장애에게는 G(29.8%), O(16.6%), D(14.6%)의 순으로 높았고, 시각·청각·언어·안면 장애에게는 G(14.6%), D(7.8%), O(7.3%)의 순으로 높았으며, 발달·정신 장애에게는 G(14.6%), D(6.8%), O(5.9%)의 순으로 높았다. 내부기관 장애에게는 전체 5.4% 중에서 4.8%, 중복장애에게는 전체 5.4% 중에서 4.9%가 G(장애인복지관)가 가장 높았다.

장애정도/보행방법에 따른 참여기관은 모두 G(장애인복지관)이 가장 높았고, D(사회복지관), O(장애인자립생활센터)도 높았다. 심한 장애에게는 G(49.8%), O(24.9%), D(21.5%)의 순으로 높았고, 심하지 않은 장애에게는 G(21.5%), D(13.2%), O(5.9%)의 순으로 높았다. 스스로 보행에게는 G(39.5%), D(17.1%), O(12.2%)의 순으로 높았고, 휠체어, 목발 등에게는 G(19.0%), O(13.2%), D(9.3%)의 순으로 높았으며, 도우미 도움에게는 G(12.7%), D(8.3%), O(5.4%)의 순으로 높았다.

학력/직업유무에 따른 참여기관은 모두 G(장애인복지관)이 가장 높았고, D(사회복지관), E(문화예술 시설), O(장애인자립생활센터)도 높았다. 초등학교 졸업 이하에게는 전체 7.3% 중에서 G가 5.9%가 될 정도로 가장 높았다. 중학교 졸업에게는 G(20.0%), D(9.8%), O(6.8%)의 순으로 높았고, 고등학교 졸업에게는 G(35.1%), D(15.6%), O(12.2%)의 순으로 높았으며, 대학 졸업 이상에게는 O(10.7%), G(10.2%), D(5.4%)의 순으로 높았다. 직업있다에게는 G(14.6%), O(12.7%), D·E(6.3%)의 순으로 높았고, 직업없다에게는 G(58.6%), D(28.3%), O(18.0%)의 순으로 높았다.

장애유형(.032 < .05), 장애정도(.037 < .05)에 따라 참여기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요인들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IV-8>과 같다.

<표 IV-8>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참여기관 차이

(단위: 명, %)

변인	빈도(%)															x ² (p)	
	A	B	C	D	E	F	G	H	I	J	K	L	M	O	전체		
성별	남성	4 (2.0)	6 (2.9)	3 (1.5)	33 (16.1)	11 (5.4)	3 (1.5)	64 (31.2)	1 (0.5)	4 (2.0)	9 (4.4)	2 (1.0)	0 (0.0)	4 (2.0)	36 (17.6)	98 (47.8)	3.351 (.501)
	여성	6 (2.9)	7 (3.4)	3 (1.5)	38 (18.5)	9 (4.4)	2 (1.0)	82 (40.0)	1 (0.5)	2 (1.0)	4 (2.0)	6 (2.9)	1 (0.5)	7 (3.4)	27 (13.2)	107 (52.2)	
나이	17세~39세	6 (2.9)	6 (2.9)	3 (1.5)	18 (8.8)	6 (2.9)	2 (1.0)	48 (23.4)	2 (1.0)	4 (2.0)	8 (3.9)	3 (1.5)	0 (0.0)	7 (3.4)	20 (9.8)	72 (35.1)	11.425 (.179)
	40세~59세	4 (2.0)	3 (1.5)	3 (1.5)	24 (11.7)	8 (3.9)	1 (0.5)	43 (21.0)	0 (0.0)	0 (0.0)	2 (1.0)	3 (1.5)	1 (0.5)	4 (2.0)	24 (11.7)	65 (31.7)	
	60대 이상	0 (0.0)	4 (2.0)	0 (0.0)	29 (14.1)	6 (2.9)	2 (1.0)	55 (26.8)	0 (0.0)	2 (1.0)	3 (1.5)	2 (1.0)	0 (0.0)	0 (0.0)	19 (9.3)	68 (33.2)	
장애유형	지체·뇌병변	8 (3.9)	7 (3.4)	3 (1.5)	30 (14.6)	10 (4.9)	1 (0.5)	61 (29.8)	0 (0.0)	1 (0.5)	6 (2.9)	4 (2.0)	1 (0.5)	5 (2.4)	34 (16.6)	93 (45.4)	27.958 (.032)
	시각·청각·언어	0 (0.0)	1 (0.5)	0 (0.0)	16 (7.8)	7 (3.4)	2 (1.0)	30 (14.6)	0 (0.0)	2 (1.0)	3 (1.5)	1 (0.5)	0 (0.0)	2 (1.0)	15 (7.3)	39 (19.0)	
	발달·정신	2 (1.0)	4 (2.0)	2 (1.0)	14 (6.8)	1 (0.5)	2 (1.0)	38 (18.5)	2 (1.0)	3 (1.5)	4 (2.0)	2 (1.0)	0 (0.0)	4 (2.0)	12 (5.9)	51 (24.9)	
	내부기관	0 (0.0)	1 (0.5)	1 (0.5)	5 (2.4)	1 (0.5)	0 (0.0)	7 (3.4)	0 (0.0)	0 (0.0)	0 (0.0)	1 (0.5)	0 (0.0)	0 (0.0)	0 (0.0)	11 (5.4)	
	중복장애	0 (0.0)	0 (0.0)	0 (0.0)	6 (2.9)	1 (0.5)	0 (0.0)	10 (4.9)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 (1.0)	11 (5.4)	
장애정도	심한장애	4 (2.0)	7 (3.4)	2 (1.0)	44 (21.5)	15 (7.3)	3 (1.5)	102 (49.8)	2 (1.0)	5 (2.4)	11 (5.4)	7 (3.4)	1 (0.5)	10 (4.9)	51 (24.9)	140 (68.3)	10.239 (.037)
	심하지않은장애	6 (2.9)	6 (2.9)	4 (2.0)	27 (13.2)	5 (2.4)	2 (1.0)	44 (21.5)	0 (0.0)	1 (0.5)	2 (1.0)	1 (0.5)	0 (0.0)	1 (0.5)	12 (5.9)	65 (31.7)	
보행방법	스스로보행	7 (3.4)	8 (3.9)	5 (2.4)	35 (17.1)	6 (2.9)	4 (2.0)	81 (39.5)	2 (1.0)	5 (2.4)	5 (2.4)	4 (2.0)	0 (0.0)	8 (3.9)	25 (12.2)	110 (53.7)	7.359 (.498)
	휠체어·목발 등	2 (1.0)	3 (1.5)	1 (0.5)	19 (9.3)	8 (3.9)	0 (0.0)	39 (19.0)	0 (0.0)	0 (0.0)	7 (3.4)	2 (1.0)	1 (0.5)	2 (1.0)	27 (13.2)	61 (29.8)	
	도우미도움	1 (0.5)	2 (1.0)	0 (0.0)	17 (8.3)	6 (2.9)	1 (0.5)	26 (12.7)	0 (0.0)	1 (0.5)	1 (0.5)	2 (1.0)	0 (0.0)	1 (0.5)	11 (5.4)	34 (16.6)	

학 력	초등교 졸업 이하	0 (0.0)	1 (0.5)	0 (0.0)	8 (3.9)	0 (0.0)	0 (0.0)	12 (5.9)	0 (0.0)	0 (0.0)	0 (0.0)	0 (0.0)	0 (0.0)	2 (1.0)	15 (7.3)	13. 306 (.34 7)	
	중학교 졸업	0 (0.0)	1 (0.5)	2 (1.0)	20 (9.8)	3 (1.5)	1 (0.5)	41 (20.0)	0 (0.0)	1 (0.5)	3 (1.5)	2 (1.0)	0 (0.0)	0 (0.0)	14 (6.8)		50 (24.4)
	고등 학교 졸업	3 (1.5)	7 (3.4)	2 (1.0)	32 (15.6)	10 (4.9)	4 (2.0)	72 (35.1)	2 (1.0)	3 (1.5)	7 (3.4)	4 (2.0)	0 (0.0)	7 (3.4)	25 (12.2)		93 (45.4)
	대학 졸업 이상	7 (3.4)	4 (2.0)	2 (1.0)	11 (5.4)	7 (3.4)	0 (0.0)	21 (10.2)	0 (0.0)	2 (1.0)	3 (1.5)	2 (1.0)	1 (0.5)	4 (2.0)	22 (10.7)		47 (22.9)
직 업 유 무	있다	6 (2.9)	9 (4.4)	1 (0.5)	13 (6.3)	13 (6.3)	1 (0.5)	30 (14.6)	0 (0.0)	3 (1.5)	4 (2.0)	4 (2.0)	1 (0.5)	6 (2.9)	26 (12.7)	63 (30.7)	4. 889 (.29 9)
	없다	4 (2.0)	4 (2.0)	5 (2.4)	58 (28.3)	7 (3.4)	4 (2.0)	116 (58.6)	2 (1.0)	3 (1.5)	9 (4.4)	4 (2.0)	0 (0.0)	5 (2.4)	37 (18.0)	142 (69.3)	

- A: 평생교육법 등록기관 B: 주민자치센터 C: 지역 도서관
D: 사회복지관 E: 문화예술 시설 F: 노인관련시설
G: 장애인 복지관 H: 지역사회 재활시설 I: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J: 장애인 야학 K: 여성관련 시설 L: 청소년관련시설
M: 직업교육시설 O: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라.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참여목적 차이

성별에 따른 참여목적은 지식 습득 등 자기 계발, 심리적 만족 및 행복감이 가장 높았다. 남성에게는 지식 습득 등 자기 계발(19.9%), 심리적 만족 및 행복감(19.4%), 건강(17.5%)의 순으로 높았고, 여성에게는 심리적 만족 및 행복감(23.8%), 지식 습득 등 자기 계발(19.9%), 건강(15.0%)의 순으로 높았다.

나이에 따른 참여목적은 지식 습득 등 자기 계발, 심리적 만족 및 행복감, 건강이 가장 높았다. 17세~39세에게는 지식 습득 등 자기 계발(18.4%), 심리적 만족 및 행복감(16.0%), 직업(15.5%)의 순으로 높았고, 40세~59세에게는 심리적 만족 및 행복감(15.5%), 지식 습득 등 자기 계발(12.1%), 친목 도모(8.3%)의 순으로 높았으며, 60대 이상에게는

건강(16.5%), 친목 도모(12.6%), 심리적 만족 및 행복감(11.7%)의 순으로 높았다.

장애유형에 따른 참여목적은 지식 습득 등 자기 계발, 심리적 만족 및 행복감이 가장 높았다. 지체·뇌병변 장애에게는 지식 습득 등 자기 계발(18.4%), 심리적 만족 및 행복감(16.5%), 건강(15.5%)의 순으로 높았고, 시각·청각·언어·안면 장애에게는 심리적 만족 및 행복감(8.3%), 지식 습득 등 자기 계발(7.3%), 건강(6.3%)의 순으로 높았으나, 발달·정신 장애에게는 지식 습득 등 자기 계발(15.0%), 심리적 만족 및 행복감(13.6%), 직업(10.2%)의 순으로 높았다. 내부기관 장애에게는 전체 5.3% 중에서 심리적 만족 및 행복감(3.4%), 중복장애에게는 전체 5.8% 중에서 친목 도모(3.9%)가 가장 높았다.

장애정도에 따른 참여목적은 지식 습득 등 자기 계발, 건강, 심리적 만족 및 행복감이 가장 높았다. 심한 장애에게는 지식 습득 등 자기 계발(31.6%), 심리적 만족 및 행복감(29.6%), 건강(18.9)의 순으로 높았고, 심하지 않은 장애에게는 건강·심리적 만족 및 행복감(13.6%), 지식 습득 등 자기 계발(9.7%), 친목 도모(8.3%)의 순으로 높았다.

보행방법에 따른 참여목적은 지식 습득 등 자기 계발, 심리적 만족 및 행복감이 가장 높았다. 스스로 보행에게는 지식 습득 등 자기계발(23.8%), 심리적 만족 및 행복감(21.8%), 직업(18.4%)의 순으로 높았고, 휠체어, 목발 등에게는 심리적 만족 및 행복감, 지식 습득 등 자기 계발(12.1%), 건강(9.2%)의 순으로 높았으며, 도우미 도움에는 심리적 만족 및 행복감(9.2%), 건강(6.8%), 지식 습득 등 자기 계발(5.3%)의 순으로 높았다.

학력에 따른 참여목적은 친목 도모, 건강, 지식 습득 등 자기 계발이 가장 높았다. 초등 졸업 이하에게는 전체(7.3%) 중에서 친목 도모(3.4%)

가 가장 높았고, 중학교 졸업에는 건강(12.6%), 심리적 만족 및 행복감(10.2%), 친목 도모(8.3%)의 순으로 높았다. 고등학교 졸업에게는 지식 습득 등 자기 계발(22.3%), 심리적 만족 및 행복감(21.4%), 직업(14.6%)의 순으로 높았고, 대학 졸업 이상에게는 지식 습득 등 자기 계발(11.22%), 심리적 만족 및 행복감(8.2%), 직업(6.8%)의 순으로 높았다.

직업유무에 따른 참여목적은 지식 습득 등 자기 계발, 심리적 만족 및 행복감이 가장 높았다. 직업있다는에게는 지식 습득 등 자기 계발(14.1%), 심리적 만족 및 행복감(12.6%), 직업(10.7%)의 순으로 높았고, 직업없다는에게는 심리적 만족 및 행복감(30.6%), 건강(28.2%) 지식 습득 등 자기 계발(27.2%)의 순으로 높았다.

모든 요인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IV-9>과 같다.

〈표 IV-9〉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참여목적 차이

(단위: 명, %)

변인	빈도(%)							$\chi^2(p)$	
	직업	건강	심리적 만족 및 행복감	지식 습득 등 자기계발	시민의식 증진 및 사회참여	친목 도모	전체		
성 별	남성	23 (11.2)	36 (17.5)	40 (19.4)	41 (19.9)	22 (10.7)	28 (13.6)	99 (48.1)	3.113 (.539)
	여성	27 (13.1)	31 (15.0)	49 (23.8)	44 (21.4)	14 (6.8)	27 (13.1)	107 (51.8)	
나 이	17세~ 39세	32 (15.5)	16 (7.8)	33 (16.0)	38 (18.4)	12 (5.8)	12 (5.8)	72 (35.0)	15.447 (.051)
	40세~ 59세	16 (7.8)	17 (8.3)	32 (15.5)	25 (12.1)	12 (5.8)	17 (8.3)	65 (31.5)	
	60대 이상	2 (1.0)	34 (16.5)	24 (11.7)	22 (10.7)	12 (5.8)	26 (12.6)	69 (33.5)	
장 애 유 형	지체·뇌병 변 장애	18 (8.7)	32 (15.5)	34 (16.5)	38 (18.4)	18 (8.7)	22 (10.7)	93 (45.1)	19.325 (.252)
	시각·청각· 언어·안면	6 (2.9)	13 (6.3)	17 (8.3)	15 (7.3)	10 (4.9)	10 (4.9)	39 (18.9)	
	발달·정신	21	12	28	31	6	11	51	

	장애	(10.2)	(5.8)	(13.6)	(15.0)	(2.9)	(5.3)	(24.8)	
	내부기관 장애	4 (1.9)	5 (2.4)	7 (3.4)	0 (0.0)	0 (0.0)	4 (1.9)	11 (5.3)	
	중복장애	1 (0.5)	5 (2.4)	3 (1.5)	1 (0.5)	2 (1.0)	8 (3.9)	12 (5.8)	
장애 정도	심한 장애	38 (18.4)	39 (18.9)	61 (29.6)	65 (31.6)	29 (14.1)	38 (18.4)	141 (68.4)	5.096 (.278)
	심하지 않은 장애	12 (5.8)	28 (13.6)	28 (13.6)	20 (9.7)	7 (3.4)	17 (8.3)	65 (31.6)	
보행 방법	스스로 보행	38 (18.4)	34 (16.5)	45 (21.8)	49 (23.8)	13 (6.3)	28 (13.6)	111 (53.9)	10.478 (.233)
	휠체어, 목발 등	10 (4.9)	19 (9.2)	25 (12.1)	25 (12.1)	16 (7.8)	18 (8.7)	61 (29.6)	
	도우미 도움	2 (1.0)	14 (6.8)	19 (9.2)	11 (5.3)	7 (3.4)	9 (4.4)	34 (16.5)	
학력	초등 졸업 이하	2 (1.0)	6 (2.9)	5 (2.4)	4 (1.9)	0 (0.0)	7 (3.4)	15 (7.3)	13.561 (.330)
	중학교 졸업	4 (1.9)	26 (12.6)	21 (10.2)	12 (5.8)	5 (2.4)	17 (8.3)	51 (24.8)	
	고등학교 졸업	30 (14.6)	29 (14.1)	44 (21.4)	46 (22.3)	19 (9.2)	23 (11.2)	93 (45.1)	
	대학 졸업 이상	14 (6.8)	6 (2.9)	19 (8.2)	23 (11.2)	12 (5.8)	8 (3.9)	47 (22.8)	
직업 유무	직업있다	22 (10.7)	9 (4.4)	26 (12.6)	29 (14.1)	14 (6.8)	12 (5.8)	63 (30.6)	1.856 (.762)
	없다	28 (13.6)	58 (28.2)	63 (30.6)	56 (27.2)	22 (10.7)	43 (20.9)	143 (69.4)	

마.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참여만족 차이

모든 인구사회학적 요인에서 평생교육 참여만족의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보행방법(.048 < .05)에 따라 참여만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요인들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IV-10>와 같다.

〈표 IV-10〉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참여만족 차이

(단위: 명, %)

변인		빈도(%)						$\chi^2(p)$
		전혀, 도움못됨	조금, 도움못됨	보통	조금, 도움	매우, 도움	전체	
성별	남성	1 (0.5)	4 (1.9)	13 (6.3)	37 (17.9)	45 (21.7)	100 (48.3)	6.318 (.177)
	여성	1 (0.5)	0 (0.0)	10 (4.8)	36 (17.4)	60 (29.0)	107 (51.7)	
나이	17세~39세	1 (0.5)	1 (0.5)	10 (4.8)	21 (10.1)	40 (19.3)	73 (35.3)	4.980 (.760)
	40세~59세	0 (0.0)	1 (0.5)	7 (3.4)	28 (13.5)	29 (14.0)	65 (31.4)	
	60대 이상	1 (0.5)	2 (1.0)	6 (2.9)	24 (11.6)	36 (17.4)	69 (33.3)	
장애유형	지체·뇌병변장애	2 (1.0)	3 (1.4)	11 (5.3)	33 (15.9)	45 (21.7)	94 (45.4)	22.121 (.139)
	시각·청각·언어· 안면 장애	0 (0.0)	0 (0.0)	6 (2.9)	19 (9.2)	14 (6.8)	39 (18.8)	
	발달·정신 장애	0 (0.0)	0 (0.0)	4 (1.9)	11 (5.3)	36 (17.4)	51 (24.6)	
	내부기관 장애	0 (0.0)	0 (0.0)	0 (0.0)	5 (2.4)	6 (2.9)	11 (5.3)	
	중복장애	0 (0.0)	1 (0.5)	2 (1.0)	5 (2.4)	4 (1.9)	12 (5.8)	
장애 정도	심한 장애	1 (0.5)	2 (1.0)	19 (9.2)	43 (20.8)	76 (36.7)	141 (68.1)	6.863 (.143)
	심하지 않은 장애	1 (0.5)	2 (1.0)	4 (1.9)	30 (14.5)	29 (14.0)	66 (31.9)	
보행 방법	스스로 보행	1 (0.5)	2 (1.0)	10 (4.8)	32 (15.5)	66 (31.9)	111 (53.6)	15.657 (.048)
	휠체어, 목발 등	1 (0.5)	1 (0.5)	10 (4.8)	20 (9.7)	29 (14.0)	61 (29.5)	
	도우미 도움	0 (0.0)	1 (0.5)	3 (1.4)	21 (10.1)	10 (4.8)	35 (16.9)	
학력	초등 졸업 이하	0 (0.0)	0 (0.0)	1 (0.5)	3 (1.4)	11 (5.3)	15 (7.2)	6.371 (.896)
	중학교 졸업	1 (0.5)	1 (0.5)	5 (2.4)	21 (10.1)	23 (11.1)	51 (24.6)	
	고등학교 졸업	1 (0.5)	2 (1.0)	11 (5.3)	30 (14.5)	50 (24.2)	94 (45.4)	
	대학 졸업 이상	0 (0.0)	1 (0.5)	6 (2.9)	19 (9.2)	21 (10.1)	47 (22.7)	

직업유무	있다	1 (0.5)	1 (0.5)	8 (3.9)	22 (10.6)	31 (15.0)	63 (30.4)	.667 (.955)
	없다	1 (0.5)	3 (1.4)	15 (7.2)	51 (24.6)	74 (35.7)	144 (69.6)	

5.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

성별, 장애정도, 직업유무에 따른 생활만족도 하위요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독립표본 t 검정(t-test)을 실시하였다. 전체 생활만족도는 여성(M=3.509), 심한 장애(M=3.528), 직업있음(M=3.578) 일수록 높았다. 생활만족도의 하위요인 모두에서 의식주 영역에서 가장 높고, 일·경제 영역에서 모두 낮았다. 일·경제 영역은 직업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t=3.115, .002 < .05$), 반면에, 의식주 영역, 신체·정신건강 영역, 사회생활 영역, 행복감 영역, 자아감 영역, 생활만족도는 성별, 장애정도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IV-11>에 제시되어있다.

<표 IV-11> 성별, 장애정도, 직업유무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

변인		N	M(SD)	t(p)	
성 별	의식주	남성	100	3.670(.879)	-.788 (.432)
		여성	107	3.760(.766)	
	신체·정신건강	남성	100	3.560(.838)	.441 (.737)
		여성	107	3.520(.858)	
	일·경제	남성	100	3.065(1.044)	-.133 (.894)
		여성	107	3.084(1.020)	
	사회생활	남성	100	3.410(.908)	-1.344 (.181)
		여성	107	3.570(.805)	

	행복감	남성	100	3.545(.847)	-.482 (.630)	
		여성	107	3.603(.876)		
	자아감	남성	100	3.640(.841)	1.010 (.314)	
		여성	107	3.514(.945)		
	생활만족도	남성	100	3.482(.680)	-.284 (.777)	
		여성	107	3.509(.681)		
장애 정도	의식주	심한 장애	141	3.754(.785)	.961 (.338)	
		심하지 않은 장애	66	3.636(.896)		
	신체·정신건강	심한 장애	141	3.586(.793)	1.164 (.246)	
		심하지 않은 장애	66	3.439(.950)		
	일·경제	심한 장애	141	3.135(1.010)	1.225 (.222)	
		심하지 않은 장애	66	2.947(1.064)		
	사회생활	심한 장애	141	3.546(.847)	1.309 (.192)	
		심하지 않은 장애	66	3.379(.877)		
	행복감	심한 장애	141	3.578(.848)	.078 (.939)	
		심하지 않은 장애	66	3.568(.894)		
	자아감	심한 장애	141	3.571(.907)	-.083 (.926)	
		심하지 않은 장애	66	3.583(.880)		
	생활만족도	심한 장애	141	3.528(.644)	1.015 (.311)	
		심하지 않은 장애	66	3.426(.749)		
	직업 유무	의식주	직업 있다	63	3.735(.876)	.218 (.828)
			없다	144	3.708(.800)	
		신체·정신건강	직업 있다	63	3.503(.910)	-.413 (.680)
			없다	144	3.556(.820)	
일·경제		직업 있다	63	3.405(.897)	3.115 (.002)	
		없다	144	2.931(1.052)		
사회생활		직업 있다	63	3.571(.937)	.872 (.384)	
		없다	144	3.458(.823)		
행복감		직업 있다	63	3.571(.888)	-.038 (.970)	
		없다	144	3.576(.851)		
자아감		직업 있다	63	3.683(.881)	1.144 (.254)	
		없다	144	3.528(.902)		
생활만족도		직업 있다	63	3.578(.697)	1.156 (.249)	
		없다	144	3.460(.671)		

나이, 장애유형, 보행방법, 학력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전체 생활만족도는 17세~39세(M=3.594), 내부기관 장애(M=3.760), 스스로 보행(M=3.569), 고등학교 졸업(M=3.584) 일수록 높았다. 생활만족도

하위요인의 모든 '의식주 영역'이 가장 높고, 모든 '일·경제 영역'이 가장 낮았다.

장애유형에 따라 일·경제 영역(.004 < .05)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분석 결과 시각·청각·언어·안면 장애와 내부기관 장애가 중복장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방법에 따라 의식주 영역(.030 < .05)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스스로 보행이 도우미 도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라 신체·정신건강 영역(.021 < .05)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후분석 결과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나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IV-12>에 제시되어있다.

〈표 IV-12〉 나이, 장애유형, 보행방법, 학력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

변인		N	M(SD)	F(p)	Scheffé	
나 이	의식주	17세~39세(a)	73	3.813(.891)	.909 (.404)	
		40세~59세(b)	65	3.703(.715)		
		60대 이상(c)	69	3.628(.841)		
	신체·정신건강	17세~39세(a)	73	3.671(.854)	2.841 (.061)	
		40세~59세(b)	65	3.595(.855)		
		60대 이상(c)	69	3.348(.807)		
	일·경제	17세~39세(a)	73	3.158(1.111)	2.819 (.062)	
		40세~59세(b)	65	3.231(1.004)		
		60대 이상(c)	69	2.841(.929)		
	사회생활	17세~39세(a)	73	3.603(.943)	2.855 (.054)	
		40세~59세(b)	65	3.585(.783)		
		60대 이상(c)	69	3.290(.806)		
	행복감	17세~39세(a)	73	3.699(.956)	1.482 (.630)	
		40세~59세(b)	65	3.562(.778)		
		60대 이상(c)	69	3.457(.821)		
	자아감	17세~39세(a)	73	3.623(1.023)	.197 (.822)	
		40세~59세(b)	65	3.569(.833)		
		60대 이상(c)	69	3.529(.817)		

장애 유형	생활만족도	17세~39세(a)	73	3.623(1.023)	-.284 (.079)	
		40세~59세(b)	65	3.569(.833)		
		60대 이상(c)	69	3.529(.817)		
	의식주	지체·뇌병변(a)	94	3.762(.867)	1.284 (.277)	
		시각·청각·언어·(b)	39	3.607(.709)		
		발달·정신(c)	51	3.791(.899)		
		내부기관 (d)	11	3.849(.524)		
		중복장애(e)	12	3.278(.566)		
	신체·정신건강	지체·뇌병변(a)	94	3.504(.860)	2.239 (.066)	
		시각·청각·언어·(b)	39	3.684(.640)		
		발달·정신(c)	51	3.595(.898)		
		내부기관 (d)	11	3.758(.701)		
		중복장애(e)	12	2.917(1.036)		
	일·경제	지체·뇌병변(a)	94	2.926(.962)	3.945 (.004)	e < b,d
		시각·청각·언어·(b)	39	3.436(.933)		
		발달·정신(c)	51	3.088(.080)		
		내부기관 (d)	11	3.682(.929)		
		중복장애(e)	12	2.458(1.215)		
	사회생활	지체·뇌병변(a)	94	3.463(.811)	2.230 (.067)	
		시각·청각·언어·(b)	39	3.410(.742)		
		발달·정신(c)	51	3.716(.966)		
내부기관 (d)		11	3.591(.769)			
중복장애(e)		12	2.958(.988)			
행복감	지체·뇌병변(a)	94	3.489(.861)	1.612 (.173)		
	시각·청각·언어·(b)	39	3.551(.626)			
	발달·정신(c)	51	3.706(.016)			
	내부기관 (d)	11	4.046(.568)			
	중복장애(e)	12	3.333(.913)			
자아감	지체·뇌병변(a)	94	3.543(.879)	1.007 (.405)		
	시각·청각·언어·(b)	39	3.769(.760)			
	발달·정신(c)	51	3.559(1.038)			
	내부기관 (d)	11	3.636(.778)			
	중복장애(e)	12	3.208(.891)			
생활만족도	지체·뇌병변(a)	94	3.448(.665)	2.344 (.056)		
	시각·청각·언어·(b)	39	3.576(.485)			
	발달·정신(c)	51	3.576(.786)			
	내부기관 (d)	11	3.760(.608)			
	중복장애(e)	12	3.026(.757)			
	의식주	스스로 보행(a)	111	3.841(.811)	3.563	c < a

보 행 방 법		휠체어, 목발(b)	61	3.650(.893)	(.030)	
		도우미 도움(c)	35	3.438(.646)		
	신체·정신건강	스스로 보행(a)	111	3.565(.803)	.349 (.706)	
		휠체어, 목발(b)	61	3.465(.909)		
	일·경제	도우미 도움(c)	35	3.591(.886)	1.946 (.145)	
		스스로 보행(a)	111	3.565(.847)		
		휠체어, 목발(b)	61	3.465(1.026)		
	사회생활	도우미 도움(c)	35	3.591(1.029)	1.794 (.169)	
		스스로 보행(a)	111	3.590(.869)		
		휠체어, 목발(b)	61	3.426(.903)		
	행복감	도우미 도움(c)	35	3.300(.709)	2.074 (.128)	
		스스로 보행(a)	111	3.671(.843)		
		휠체어, 목발(b)	61	3.393(.913)		
	자아감	도우미 도움(c)	35	3.586(.790)	.138 (.871)	
		스스로 보행(a)	111	3.599(.876)		
휠체어, 목발(b)		61	3.525(.906)			
생활만족도	도우미 도움(c)	35	3.586(.966)	1.512 (.223)		
	스스로 보행(a)	111	3.569(.672)			
	휠체어, 목발(b)	61	3.387(.726)			
학 력	의식주	도우미 도움(c)	35	3.452(.603)	n.s	
		스스로 보행(a)	111	3.569(.672)		
		휠체어, 목발(b)	61	3.387(.726)		
		도우미 도움(c)	35	3.452(.603)		
	신체·정신건강	초등 졸업 이하(a)	15	3.600(.818)	.739 (.530)	
		중학교 졸업(b)	51	3.732(.727)		
		고등학교 졸업(c)	94	3.791(.745)		
		대학 졸업 이상(d)	47	3.589(1.045)		
	일·경제	초등 졸업 이하(a)	15	3.244(.886)	3.328 (.021)	
		중학교 졸업(b)	51	3.543(.827)		
		고등학교 졸업(c)	94	3.709(.790)		
		대학 졸업 이상(d)	47	3.291(.903)		
	사회생활	초등 졸업 이하(a)	15	2.600(.986)	1.528 (.208)	
		중학교 졸업(b)	51	3.029(1.007)		
		고등학교 졸업(c)	94	3.192(1.019)		
		대학 졸업 이상(d)	47	3.043(1.067)		
행복감	초등 졸업 이하(a)	15	3.600(1.021)	1.456 (.228)		
	중학교 졸업(b)	51	3.441(.690)			
	고등학교 졸업(c)	94	3.601(.854)			
	대학 졸업 이상(d)	47	3.298(.959)			
자아감	초등 졸업 이하(a)	15	3.467(.767)	.726 (.538)		
	중학교 졸업(b)	51	3.549(.743)			
	고등학교 졸업(c)	94	3.665(.872)			
	대학 졸업 이상(d)	47	3.457(.983)			
	초등 졸업 이하(a)	15	3.633(.767)	.061 (.980)		
	중학교 졸업(b)	51	3.588(.870)			

생활만족도	고등학교 졸업(c)	94	3.548(.919)	1.215 (.305)
	대학 졸업 이상(d)	47	3.596(.942)	
	초등 졸업 이하(a)	15	3.357(.590)	
	중학교 졸업(b)	51	3.480(.625)	
	고등학교 졸업(c)	94	3.584(.655)	
	대학 졸업 이상(d)	47	3.379(.796)	

6. 평생교육 참여와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와 생활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평생교육 참여의 하위요인(참여영역, 참여방법, 참여기관, 참여목적)별로 피어슨의 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IV-13>와 같다.

<표 IV-13> 평생교육 참여와 생활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변인	생활만족도
평생교육 참여영역	
기초문해교육	-.038
학력보완교육	.027
직업능력향상교육	.037
문화예술교육	.037
인문교양교육	.044
시민참여교육	.034
평생교육 참여방법	
강사강좌	.155*
직업훈련	-.191**
원격강좌	-.024
학습동아리	.171*

개인교습	-.049
세미나 및 워크숍	.011
평생교육 참여기관	
평생교육법 등록기관	.089
주민자치센터	.124
지역 도서관	.090
사회복지관	.034
문화예술 시설	.085
노인관련 시설	.002
장애인복지관	.039
지역사회 재활 시설	.062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070
장애인 야학	.090
여성관련 시설	.001
청소년관련 시설	.026
직업교육 시설	.043
장애인자립생활센터	.085
평생교육 참여목적	
직업과 관련	-.016
건강	-.144*
심리적 만족 및 행복감	.128
지식습득 등 자기개발	.104
시민의식 증진 및 사회참여	.002
친목 도모	-.151*

* $p < .05$, ** $p < .01$

평생교육 참여영역의 하위요인 기초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 시민참여교육과 생활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어느 변수도 생활만족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참여방법의 하위요인 강사강좌, 직업훈련, 원격강좌, 학습동아리, 개인교

습, 세미나 및 워크숍과 생활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강사강좌($r=.155, p<.05$), 학습동아리($r=.171, p<.05$)은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직업훈련($r=.191, p<.01$)은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원격강좌, 개인교습, 세미나 및 워크숍은 생활만족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참여기관의 하위요인 평생교육법 등록기관, 주민자치센터, 지역 도서관, 사회복지관, 문화예술 시설, 노인관련 시설, 장애인복지관, 지역사회 재활 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야학, 여성관련시설, 청소년관련시설, 직업교육 시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생활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어느 변수도 생활만족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참여목적의 하위요인 직업과 관련, 건강, 심리적 만족 및 행복감, 지식 습득 등 자기 계발, 시민의식 증진 및 사회참여, 친목 도모와 생활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건강($r=.144, p<.05$), 친목 도모($r=.151, p<.05$)는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직업과 관련, 심리적 만족 및 행복감, 지식 습득 등 자기계발, 시민의식 증진 및 사회참여는 생활만족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7. 평생교육 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평생교육 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참여의 하위요인(참여영역, 참여방법, 참여목적)별로 다중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평생교육 참여영역의 하위요인(기초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 시민참여교육)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F=.407$),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1.2%(조정된 R^2 는 1.8%)로 나타났다($R^2=.012$, 조정된 $R^2=.018$).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2.047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에서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평생교육 참여영역은 없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IV-14>과 같다.

〈표 IV-14〉 평생교육 참여영역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i>B</i>	<i>S.E.</i>	β	<i>t</i>
생활 만족도	(상수)	3.372	.113		29.744
	기초문해교육	-.071	.106	-.048	-.669
	학력보완교육	.110	.130	.065	.845
	직업능력향상교육	.081	.105	.056	.779
	문화예술교육	.105	.105	.077	.994
	인문교양교육	.075	.111	.050	.677
	시민참여교육	.063	.114	.041	.552

$F=.407$, $R^2=.012$, 조정된 $R^2=.018$, $Durbin-Watson=2.047$

평생교육 참여방법의 하위요인(강사강좌, 직업훈련, 원격강좌, 학습동아리, 개인 교습, 세미나 및 워크숍)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F=3.070$),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8.4%(조정된 R^2 는 5.7%)로 나타났다($R^2=.084$, 조정된 $R^2=.057$). 그러나, 설명력이 매우 낮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2.065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에서 학습동아리($\beta = .196$)는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직업훈련($\beta = -.154$)은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성인이 학습동아리에 참여하는 것은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것은 생활만족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IV-15>와 같다.

<표 IV-15> 평생교육 참여방법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생활 만족도	(상수)	3.369	.113		29.742
	강사강좌	.175	.109	.119	1.601
	직업훈련	-.245	.117	-.154	-2.099*
	원격강좌	-.077	.136	-.039	-.565
	학습동아리	.325	.114	.196	2.855**
	개인교습	-.113	.256	-.030	-.442
	세미나 및 워크숍	.073	.138	.037	.528

$F=3.070, R^2=.084, \text{조정된 } R^2=.057, \text{Durbin-Watson}=2.065$

* $p < .05$, ** $p < .01$

평생교육 참여목적의 하위요인(직업과 관련, 건강, 심리적 만족 및 행복감, 지식 습득 등 자기 계발, 시민의식 증진 및 사회참여, 친목 도모)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F=1.89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5.4%(조정된 R^2 는 2.5%)로 나타났다($R^2=.054$, 조정된 $R^2=.025$). 한편, Dur

bin-Watson 통계량은 2.157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에서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평생교육 참여목적은 없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IV-16>과 같다.

〈표 IV-16〉 평생교육 참여목적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i>B</i>	<i>S.E.</i>	β	<i>t</i>
생활 만족도	(상수)	3.533	.118		29.877
	직업과 관련	-.101	.116	-.064	-.872
	건강	-.185	.111	-.127	-1.659
	심리적 만족 및 행복감	.146	.098	.107	1.489
	지식 습득 등 자기 계발	.072	.104	.052	.694
	시민의식 증진 및 사회참여	-.028	.131	-.016	-.214
	친목 도모	-.155	.114	-.101	-1.356

$F=1.891$, $R^2=.054$, 조정된 $R^2=.025$, *Durbin-Watson* = 2.157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를 통한 성과로서의 생활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부산 지역에서 거주하는 17세 이상의 평생교육을 경험했던 207명 장애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이를 통해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참여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에 상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 등을 통해 평생교육 참여에 따른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로부터 논의를 시작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실태를 분석한 결과이다. 평생교육 참여에 관한 하위요인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참여영역에서 '문화예술교육'(29.0%), 참여방법에서는 '강사강좌'(47.7%), 참여기관에서 '장애인복지관'(38.9%), 참여목적에서는 '심리적 만족 및 행복감'(23.3%), 참여만족에서 '매우, 도움'(50.7%)이다.

참여실태의 결과로부터 유추하면, 비슷한 양상으로 일정 기간 지속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2023년 본 연구의 평생교육 참여실태의 측정 도구와 같으면서, 2018년 경기지역에서 개발되고 전국 220개의 장애인복지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측정된 연구결과(조창빈 외, 2018a)¹⁾나 여러 지역에서 시행된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1순위로 조사된 선호도가 비슷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1) 참여영역의 1순위(문화예술교육 vs 학력보완교육)만 다름.

평생교육 참여실태의 참여영역 1순위로 조사된 '문화예술교육'은 장애인에게 내면세계의 확장, 타인과의 긴밀한 상호작용 등과 점진적으로는 사회와의 통합, 스스로 정체성 확립, 삶에 필요한 역량 강화 등의 계기가 된다(옥정달, 유장순, 2018). 이에 문화예술교육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평생교육법」 강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문화예술 강사의 파견 사업, 예산증액 등의 정책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김두영(2021) 연구는 미술·음악 프로그램에 편중된 프로그램, 제한된 영역·기관의 문화예술 강사 파견, 복지시설 이용자만의 교육, 학령기 중심 등의 문제점을 주장하였다. 이는 최종 결과에만 주목하지 말고,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로서 개발자나 관련 기관 담당자 등과 같은 공급자가 중심이 아니라 장애성인과 같은 소비자(당사자)가 중심을 이루면서 그들의 상황 이해와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원초적인 과정을 간과해서는 안 됨을 시사한다.

아울러, 참여목적 1순위의 '심리적 만족 및 행복감'은 '문화예술교육'의 선호도가 많음과도 연관성이 있는 듯하지만, '문화예술교육'이 1순위이지만 참여목적에서는 1순위가 다른 연구가 다수로 존재함²⁾으로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음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참여목적 1순위가 '심리적 만족 및 행복감'이지만, '문화예술교육'이 1순위가 아닌 연구도 다수로 존재함³⁾으로 이는 '심리적 만족 및 행복감'의 선호도가 '문화예술교육'이 아닌 인간과 평생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인 '삶의 질 향상'(Carroll et al., 2018; Waziana et al., 2020)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다음으로서, 프로그램 교육방법을 단순하게 '강사의 강좌방식'으로 편중

2) 이미현, 박성지(2018), 2019 부산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조사, 2021 광주광역시 장애인 평생학습 실태조사, 서유경 외(2022).

3) 2018 광명시 성인장애인 평생학습 실태조사, 2018 제주지역 장애인 평생학습 실태조사, 2022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조사.

이 이루어짐은 그들의 위치를 수동적 존재로서 한정시키게 만드는 것이다. 이는 적극성·자발성 등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방법이 필요로 함을 시사한다. 이에 평생교육 참여에 대한 방법의 하위요인 중에서 '학습동아리⁴⁾ 방식의 비중 강화'라는 변화도 그의 대안으로써 본 연구에서도 학습동아리 방식의 평생교육 참여에 따라서 생활만족도의 향상을 가져옴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냄이 증명되었다.

학습동아리의 운영을 위해서는 능동적·역동적 모습, 학습공동체 형태의 추구 등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하는 필요 요소이다. 이솔아(2015) 연구도 구성원들 사이의 학습 욕구와 이를 동반하는 결속력·유대감이 필요로 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도, 조금순(2014) 연구는 학습동아리의 운영방법에 대해서 학습자 스스로 주체적인 활동 중심보다는 '강사에 의한 강의 중심'을 더욱 선호하는 학습자가 가장 많음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학습동아리가 소그룹의 모임일지라도 교육내용이 전문적인 강사들의 주도적 학습을 더 많이 선호하는 것이다. 이는 주입식 교육의 부작용으로도 유추할 수 있다. 이에 평생교육의 정신을 다시금 숙지하여 학습동아리 리더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정기적 교육 및 학습동아리의 교류 확대, 교육 주제별로 다른 리더 활용 등이 필요로 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서, 평생교육의 교육 장소가 '장애인복지관'으로 치우쳐짐은 획일적인 교육 방향과 선택권의 제한에서 오는 다양성 부족으로 일정한 수준 이상의 교육 성과를 기대하기가 힘들다. 이동석(2018) 연구도 장애인복지관이 '다음 단계로의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개선', '교육시간의 확대' 등의 변화를 주장하였다. 이에 한정된 장소보다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통합교

4) 일정한 인원의 성인 학습자들이 자발적 모임을 통해 정해진 주제를 가지고 정기적인 학습과 토론을 하기 위해 구성된 소모임. 스웨덴의 공부 서클(study circle), 일본의 자주학습조직(自主學習組織), 호주의 학습 서클(learning circle) 등(권영선, 2017)

육을 위해서도 사회복지관 등으로의 역할분배를 위한 장애인 인프라 조성의 확장이 필요로 함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좀 더 장애인의 적극성(자립) 유도 및 자조모임⁵⁾ 활성화 등을 중심으로 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의 연계적인 역할분배도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서비스에 관해서 이인자(2010) 연구는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건강생활, 직업생활 등 전반적인 삶의 여러 부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이경준(2006) 연구도 자조모임 활동이 더욱 질적인 자립 생활의 실천을 도모한다고 한다. 더불어, 당사자들의 진정한 자기역량에 대한 강화, 자기 결정의 당사자주의 실현 등을 더욱 가시화시킴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최윤영, 이세희(2020) 연구는 전문가 부재와 평생교육 전달체계 상의 소통 어려움 등이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어려운 점이라고 주장하였다. 김두영, 이경준(2018) 연구도 장애인의 인식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방안의 모색, 장애인·비장애인의 통합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등을 주장하였다. 이에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실태조사나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비대면의 교육(장애인 평생교육 온라인 플랫폼 등) 방향 등도 필요로 함을 시사한다.

둘째, 장애성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실태이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서 평생교육 참여실태의 하위 참여영역 실태에서는 모든 요인의 1순위 결과가 '문화예술교육', 역시, 1순위 결과가 참여방법에서는 '강사강좌', 참여기관에서는 '장애인복지관'으로 큰 차별성이 없었다. 그러나, 참여목적에서는 요인 간의 차별성이 나타났다. 이를 이용하여

5) 학습동아리와 자조모임은 비슷한 뜻으로 사용되나, 목적에서 학습동아리는 사교나 친목 모임이 아닌 "정해진 주제에 대한 학습과 토론", 자조모임은 "첫째는 자아의식의 향상이나 사회적 기능의 개선, 사회 규범에 대한 적응력 강화 등의 개인적 변화이고, 둘째는 교육, 연설, 법률 제정을 위한 로비 활동, 출판 등을 통한 사회적 변화이다." [출처] Naver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참여목적의 정보를 새로운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참고사항으로써 반영시키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인의 필요·요구가 장애 유형·정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김두영, 고등영(2016) 연구도 그들의 요구를 다양한 관점에서 진단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에 장애 유형별의 프로그램 또는 교재·교구에 대한 개발사업 등도 장애 유형별 특성 파악, 교육 현장과 원활한 소통(피드백) 등이 이루어지면서 주기적으로 진행이 되어야만 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실태의 연구결과에서 참여영역에서는 나이, 장애유형에 따라, 참여방법에서는 장애정도, 학력, 직업유무에 따라, 참여기관에서는 장애유형, 장애정도에 따라, 참여만족에서는 보행방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나이(생애주기), 장애유형에 따른 참여영역의 연구결과는 생애주기에 따라 요구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차이가 있다는 심미자(2022) 연구, 나이, 장애유형에 따라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중요도 인식에 차이가 나타났다는 김두영, 고등영(2016) 연구, 발달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 내용은 기초직업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차재경 외(2021) 연구, 그리고, 중도 척수장애인에게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유미나, 이근매(2016) 연구, 자폐성 장애는 마음 읽기 프로그램이 자기·타인 인식 표현 능력, 자기 조절 능력의 정서 이해 등에 변화가 나타났다는 김두희, 이지혜(2015) 연구의 결과와 비슷한 경우이다.

이는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접근이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생애주기별로 발달과업을 가진 평범한 사회구성원으로 간주함을 시사한다. 김영애 외(2019) 연구는 손상·장애로 인한 발달적·사회적 의미를 연령대별로 다르게 봄을 인정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장애 유형별의 평생

교육 프로그램 요구를 탐색한 김호연(2020) 연구는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실질적 자립 생활의 기술·정보 중심, ‘중도·중복장애인’의 경우에는 일상생활 기능 중심 등의 차별화된 교육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김동일 외(2021) 연구는 발달장애인의 학력보완교육 프로그램을 성인기 생활 장면에 기반을 둔 학습 능력의 신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기존의 방향(교과 중심의 학력 인정)이 아니라 새로운 생애주기의 자립생활 역량까지 고려한 방향의 제시다. 이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위한 정책은 장애유형을 비롯한 생애주기별로도 적합한 교육영역의 개발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의 전문 강사 양성, 관련 인프라 등도 필요로 함을 시사한다.

장애정도, 학력, 직업유무에 따른 참여방법의 연구결과는 장애정도에 따라 정보 접근성 수준이 크게 달라진다는 조주은(2003) 연구, 장애등급(장애정도)과 직업교육과의 상호작용 향이 취업여부(직업유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김동일 외(2012) 연구, 척수장애인은 양성 보다는 역량 중심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이은영, 김용탁(2022) 연구, 그리고, 청각장애인은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의 진행에서 동영상 교육강의를 가장 많이 선호한다는 이우진, 이재호(2021) 연구의 결과와 비슷한 경우이다.

학력, 직업은 내적 자질과 직업적 역량 등의 향상과 연계시킬 수가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들의 가치는 소득, 사회적 지위 등에 대한 기대수준을 상승시킨다. 그러나, 윤상은, 이달엽(2011) 연구는 기대수준이 오히려 사회적 불만의 가중이나 생활만족도를 하향시킬 수도 있다고 한다. 이는 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이에 취업 욕구와 삶의 질이 함께 향상될 수 있는 영역의 교육을 강조해야만 한다. 윤중오, 김민정(2013) 연구는 직업훈련이 전문 기술을 습득하여 고용과 연

계됨이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강순희(2018) 연구는 직업훈련 참여는 취업이나 임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방해하는 장애특성을 반영 못 하는 교육 인프라, NCS(단순직무과정) 등으로 인한 비확실성이다. 이재준, 함은혜(2021) 연구처럼 평생교육 참여가 학력·직업과 연계 가능한 내적 자질과 직업적 역량 등의 향상에 따른 소득 격차를 확대하였을 가능성의 의미가 더 크다. 이에 장애 정도에 알맞은 전문직업영역 개발, 스마트 콘텐츠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기업과의 맞춤형 연계 등도 중요하게 다뤄야 함을 시사한다.

장애유형, 장애정도에 따른 참여기관의 연구결과는 장애 대학생은 장애 유형·정도에 따라 진로에 관한 특성이 다를 수 있다는 최용용 외(2009) 연구, 신체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민센터나 일반 평생교육기관에서 통합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도록 유도하자는 조창빈, 김두영(2020) 연구, 그리고, 시각장애 대학생을 위한 대체자료 지원체계 방안으로 국립장애인 도서관의 역할 강화, 장애학생 지원센터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역량 강화 등을 주장하는 서혜란, 강은영(2015) 연구의 결과와 비슷한 경우이다.

이는 장애인은 장애 유형·정도에 따라 다양하고 특수한 교육적 요구를 지닌 존재이다(조창빈, 김두영, 2020). 이는 '일상생활 훈련'과 같은 교육 내용, '부족한 기능을 보충해 주는 보조적 장비나 편의시설' 등이 요구되는 점이다(최윤영, 이세희, 2020). 이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윤상은, 이달엽(2012) 연구도 시각장애인의 고학력화는 재활기기의 발전과 더불어 가능했다고 주장하였다. 서원선, 고아라(2016) 연구도 장애인의 상황에 맞는 시험편의의 제공, 장애인의 환경을 고려한 시험편의의 종류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

와 평등권 실현을 위하여 평생교육 시설을 비롯한 사회시설의 인프라 확충과 베리어 프리(barrier free) 등의 정책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보행방법에 따른 참여만족의 연구결과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이 삶의 질에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는 정영득(2017) 연구와 이동권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박선우(2023) 연구와는 넓은 범위에서는 의미가 비슷한 경우이다. 이는 보행을 포함하는 인간의 이동은 자유로운 욕구 충족 및 사회참여 등을 위한 가장 최상위의 기본권으로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김용진(2019) 연구도 장애인 이동권도 다양한 사회참여와 비장애인과 통합달성의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중요한 보편적 권리라고 주장하였다. 그러한 장애인 이동권은 보행권과 교통권을 포함한 개념으로 평등의 실질적인 심사기준의 역할 및 사회 안전망의 척도가 될 수가 있음을 강조하였다(박진용, 2018; 허창덕, 신주영, 2011). 그러나, 김용진(2019) 연구는 정당성에 대한 공감대를 얻는 사회적 인식의 함의도 필요로 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의 저변확대, 장애인 차량(저상버스, 장애인 콜택시 등)의 보급률 증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점진적 강화 등의 정책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장애성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실태이다.

장애성인 생활만족도의 하위요인별로 실태를 살펴보면, 일·경제 영역, 사회생활 영역의 순으로 평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는 결과가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강성구, 임경원, 2017; 김승호 외, 2016; 장재형, 2011; 전명숙, 2018; 조혜숙, 2003). 일·경제/사회생활 영역에서의 낮은 생활만족도는 장애성인의 장애로 인한 한정되고 제한된 대인관계를 비롯한 취업 및 사회·경제생활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제한된 교육 및 고용 기회

등은 사회·경제 및 문화 영역에 참여하는 데 장벽을 만들 수 있다.’라는 선행연구와 의미를 같이한다(Carroll et al., 2018; King et al., 2003). 아울러, ‘장애인 가구는 낮은 소득수준과 식·주거 및 의료비 지출 비중이 높은 열악한 경제 구조를 보인다.’라는 장애인 실태조사(2020)의 이유로도 유추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일·경제 관련 요인이 충족되면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가 관찰되었다(박자경, 2009; 신승배, 2017; 신영일, 2022; 조현진 외, 2015). 이에 장애성인의 생활만족도를 위하여 일자리 및 소득보장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장애 유형·정도별 맞춤형 일자리 확대, 직업재활지원사업, 공공형 일자리의 확대, 사후관리서비스 확충 등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로 함을 시사한다.

이와 함께, 김현성, 김진숙(2018) 연구는 소득수준이 평생교육 참여에도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는 일·경제 관련 요인(소득수준)이 생활만족도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에도 영향이 미쳐지고 있음을 유추할 수가 있으므로 저소득층을 위한 심리·직업 상담의 지원, 문화바우처의 영역확대, 교육바우처의 강화 등이 필요로 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연구결과에서는 ‘여성, 심한 장애, 직업있음, 17세~39세(연령대가 낮을수록), 내부기관 장애, 스스로 보행, 고등학교 졸업’ 일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이를 비교하면, 김지영 외(2016) 연구는 ‘여성, 나이대가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직업있음’, 박경애(2015) 연구는 ‘나이·직업유무’, 박은경(2021) 연구는 ‘직업유무·장애유형’, 윤숙이(2022) 연구는 ‘나이·장애정도’, 권재숙(2012), 김범규, 남용현(2014), 김승호 외(2016), 김자영, 한창근(2016b) 연구는 ‘직업유무’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되는 요인으로 오수경(2019) 연구와는 ‘장애정도’ 영역에서만 차이가 나타났다.

다음으로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 하위요인의 연구결과에서는 '활동상태'와 관련이 많은 '직업유무, 장애유형, 보행방법' 요인에 따라서 생활만족도 하위요인 중의 물질 관련 생활만족도(일·경제 영역, 의식주 영역)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이 증명되었다.

이는 장애인 취업이 경제적 여건의 향상을 가져온다는 전명숙(2018) 연구, 노동시장의 장애인 차별요인(장애유형)에 따라서 경제활동 상태에 제일 크게 영향력을 받았다는 박효은(2013) 연구, 그리고, 장애유형에서는 신체외부장애, 감각장애 등과 보행방법에서는 교통수단의 이용가능 정도가 높을수록 등이 장애인의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오세란(2017) 연구가 활동상태에 따라 물질 관련 생활만족도가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와 비슷한 경우이다. 또한, 장애유형에서는 내부장애인에 비해 정신장애인의 경우가, 중증장애인에 비해 경증장애인의 경우가 취업확률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이석원, 정술(2016) 연구와 취업경험의 여부가 취업에는 유의미하지 않았다는 최운정 외(2014) 연구도 비슷한 결과로 보인다.

이에 물질 관련 생활만족도를 위해서 직업유무, 장애유형, 보행방법의 외적 활동상태를 계속해서 유지 시켜 주는 정책들이 필요로 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김성희(2014) 연구는 자립·일상생활·근로활동 등에 더욱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사회적 지원과 서비스 대상자 선정에서의 우선성과 추가적 지원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는 활동상태가 자유로운 경증장애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 중심의 지원 속에서 다른 유형의 중증장애인이 소외되는 문제가 더 큰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장애성인의 물질 관련 생활만족도의 증가를 위한 정책(적극적인 고용정책, 지역 간의 평생교육 격차 해소, 장애 유형·정도별의 지원정책, 의료지원 확대 등)도 중요하지만, 중증장애인의 문제해결(직업재활을 위한 맞춤형 시설 확충, 장애인작업장의 질적 개선, 다양한 스마트워크의 개발,

공공일자리의 제도화 등)까지도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로 함을 시사한다.

넷째,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에 따른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다. 상관분석에 의한 평생교육 참여와 생활만족도의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 것은 참여방법에서는 강사강좌(+), 학습동아리(+), 직업훈련(-), 참여목적에서는 건강(-), 친목 도모(-)다. 그리고, 다중회귀분석에 의한 생활만족도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 것은 참여방법에서의 학습동아리(+영향), 직업훈련(-영향)이다. 이는 직업훈련 참여가 생활만족도를 감소시키고, 학습동아리 참여는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킴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개선과 학습동아리 프로그램들의 적극적인 장려가 필요로 함을 시사한다.

반면에, 직업훈련에 참여한 장애인 근로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도 존재한다(김대규 외, 2022; 정형진, 2010). 장애인의 직업훈련 과정은 자기 결정 능력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발생하는 문제를 극복하는 적응 기술의 제공함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이로 인해 고용 가능성의 상승이 사회적 접촉의 다양화와 좋은 자존감의 개발을 촉진하여 더 나은 선택 등으로 활동 범위를 넓힐 것이다(Gomes et al., 2016).

직업훈련기관의 개선은 더 높은 삶의 질, 재정적으로 더 나은 미래(지속적인 일자리) 등을 열어준다. 이를 위해 김병숙(2022) 연구는 맞춤형 훈련 시설 등의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희정(2022) 연구는 직무능력 향상 중심의 실질적인 훈련 등이 필요로 함을 강조했다. 취업과 양질의 근로조건에 유리한 다양한 자격증 취득과 학력 향상, 심리적 안정 등을 위한 전문상담원의 주기적 상담 등도 계속해서 지원되어야 한다(박미량, 2014). 이는 사용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로 함을 시사한다.

더구나, 양정승(2022) 연구는 직업훈련기관의 취업률 증가 등의 긍정적인 성과가 직업훈련교사의 자격 보유, 교육경력, 현장경력 등의 우수한 훈

련 교·강사의 특성임을 주장하였다. 이는 직업훈련 교육의 질은 훈련 교·강사의 능력과 관련성이 많음을 유추할 수가 있다. 이에 직업훈련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우수한 훈련제공이 가능한 직업훈련 교·강사의 채용과 훈련기관 인증평가요소로서 인적요소의 도입 등은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 주미란(2015) 연구는 학습동아리의 참여를 통해서도 재취업을 이뤄낸 경우도 관찰되었다. 이는 학습동아리가 네트워크의 형성, 자신감 회복, 재취업 의지의 연결고리 등이 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학습동아리의 장려를 위해서 조금순(2014) 연구는 학습 내용의 강조와 조직적이고 다양한 지원체계를 통한 운영 등을 주장하였다. 김종숙, 윤지수(2014) 연구도 교육내용의 만족도가 학습 지속에 영향을 크게 미침을 강조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오지혜(2015) 연구는 개인의 성별, 나이, 학력 등의 특성 고려를 주장하였다. 더구나, 학습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덕례(2020) 연구는 셀프리더십은 동아리 구성원뿐만 아니라 동아리 전체의 성과 및 학습 역동에 변화를 일으키며, 그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다고 강조하였다.

결국, 여러 선행연구를 통한 예측과 같이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참여가 비록 한정되는 범위일지라도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냄이 증명되었다. 이는 연구결과 중에서 평생교육 참여의 참여목적 1순위가 '심리적 만족 및 행복감'이라는 점은 평생교육 참여를 통한 내적 변화의 성과로서의 생활만족도를 얻게 됨을 목적으로 참여함과 의미를 함께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장애인 대상의 연구에 비해 누적연구가 부족했던 장애인 대상의 평생교육 참여를 통한 내적 변화의 성과는 본 연구의 결론으로 다시 증명하게 되었고,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었던 내적 변화의 성과로서의 생활만족도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도 증명하게 되었다.

2. 결론 및 제언

평생교육 참여는 비참여보다 상대적으로 사회참여(정치 관심, 친목 도모, 의논 상대)와 삶의 질(만족도, 행복감, 건강)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변종임, 김인숙, 2011). 그러한 평생교육 참여의 성과는 학습의 결과로써 학습을 통한 학습자의 변화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닌 학습을 통한 학습자의 변화를 통해 얻게 되는 것을 개인적 차원의 성과와 사회적 차원의 성과로써 모두 포괄한다(이재준, 함은혜, 2021).

그래서, 평생교육 참여를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함으로써 생활만족도와 같은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이나 주인의식이나 네트워크 등의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관심·참여를 촉진을 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인다(박상옥 외, 2018).

특히, 교육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등에게는 삶을 주도적으로나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평생교육 참여를 통한 내적 변화의 성과로서 '심리적 만족 및 행복감' 등의 생활만족도를 향상하게 시킬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접근성 및 기회제공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개인의 발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 사회 발전의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이기연, 2014). 아울러, 장애성인의 낮은 수준의 신체적·사회적·문화적 활동·교육·고용 등은 건강·복지·인생 과정의 기회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평생교육은 평생학습을 통해 좌절의 극복, 방향의 전환, 역량의 구축 등으로 인생의 적극적인 개선과 기회 재창출 등을 만들며(Aspin et al., 2012; King et al., 2003), 생활만족도에 도달하는 길이다.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실태의 결과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요인은 참여영역에서는 '문화예술교육', 참여방법에서는 '강사강좌', 참여기관에서는 '장애인복지관', 참여목적에서는 '심리적 만족 및 행복감', 참여만족에서는 '매우, 도움'이다. 이에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프로그램의 개발, 학습동아리 방식의 비중증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의 연계적인 역할분배 등의 정책 방향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장애성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실태의 하위영역에서 참여목적에서는 요인들 간의 차별성으로 새로운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참고사항으로 도움을 줄 것이지만, 다른 요인은 큰 차별성이 없었다. 그리고, 참여영역에서는 나이, 장애유형에 따라, 참여방법에서는 장애정도, 학력, 직업유무에 따라, 참여기관에서는 장애유형, 장애정도에 따라, 참여만족에서는 보행방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장애인은 장애 유형·정도에 따라 다양하고 특수한 교육적 요구를 지닌 존재로서 생애주기별로 적합한 교육영역, 학력·직업 요인과 연계되는 내적 자질과 직업적 역량 등의 개발에 적합한 교육방법, 부족한 기능을 보충해주는 편의가 제공되는 교육시설 등이 맞춤형 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해서도 필요로 하고, 참여만족을 위한 장애인 이동권은 사회권을 위한 보행권과 교통권을 포함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셋째, 장애성인 생활만족도의 하위요인별로 실태를 살펴보면 일·경제영역, 사회생활 영역의 순으로 가장 낮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장애로 인한 한정되고 제한된 취업 및 사회·경제생활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이에 교육 성취 및 고용 전망이 점차 밝아지는 정책 방향이 필요로 하다.

넷째, 장애성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 '여성, 심한 장애, 직업있음, 17세~39세(연령대가 낮을수록), 내부기관 장애, 스스로 보행, 고등학교 졸업' 요인일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 '활동상태'와 관련이 많은 '직업유무, 장애유형, 보행방법' 요인에 따른 물질 관련 생활만족도(일·경제 영역, 의식주 영역)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에 물질 관련 생활만족도를 위해서 외적인 활동상태(직업유무, 장애유형, 보행방법)를 계속해서 유지 시켜 주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중증장애인의 문제까지도 고려하는 정책 방향이 필요로 하다.

다섯째,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직업훈련 참여는 생활만족도를 감소시키고, 학습동아리 참여는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킴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에 직업훈련의 문제점 개선과 학습동아리의 참여를 장려하는 정책 방향이 필요로 하다. 이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참여가 비록 한정되는 범위일지라도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침이 증명되었다. 이는 장애의 상황 이해와 진정으로 원하는 학습기회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므로(남현정, 오민석, 2020) 이에 정기적인 실태조사의 법제화가 필요로 하다.

본 연구에 기초하여 향후의 후속연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연구대상의 지역적인 제한점(부산)과 장애 유형 비율에 관한 제한점이 존재하는 연구였다. 좀 더 폭넓은 지역을 아우르고, 장애 유형 별로 비슷한 비율의 표집을 이루는 후속연구가 필요로 하다.

둘째, '주관적으로 느끼는 생활의 전반적인 만족'이라는 개념의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 삶의 질(quality of life), 행복(Happiness),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등은 생활만족도와 유사한 개념으로(박자경, 2009)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내적 변화의 성과로서도 다루어질 수가 있는데, 장애인 대상의 다양한 후속연구(누적연구)가 필요로 하다.

셋째, 측정 도구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다양성은 존중되어야겠지만, 일반화를 위해서는 공용으로 통용되는 측정 도구의 표준화로써 프로그램개발, 정책 수립 등에서 정당성과 신뢰성 등을 주는 참고 기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성구, 임경원 (2017). 장애인 일자리만족도와 일상생활만족도의 종단적 변화 및 영향 요인 분석. **장애와 고용**, 27(2), 29-45.
- 강성진 (2010). 한국인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경제학연구**, 58(1), 5-36.
- 강순희 (2018). 장애인의 직업훈련 참가 희망과 실제, 그리고 노동시장 성과. **직업과 자격 연구**, 7(2), 29-53.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2017). **2017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 및 정책 방향 연구**.
- 고민석, 김동주 (2014). 경제활동상태가 여성장애인의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24(2), 137-164.
- 고선희 (2013). 노인교육프로그램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종태, 정미경, 김혜선 (2008). 평생교육 참여유무에 따른 중년기 여성의 생의 의미인식 및 죽음불안태도와의 관계 연구. **평생교육학연구**, 14(2), 61-86.
- 고혜영, 김효정 (2022). 평생학습으로서 미술교육을 통한 성인 전기의 삶의 질에 관한 질적 연구. **조형교육**, 83, 1-34.
- 곽승철, 이유리, 임경원 (2010). 장애성인 평생교육 기관의 실태 및 개선 방안. **정서·행동장애연구**, 26(4), 207-247.

- 광명시평생학습원 (2018), 2018년 광명시 성인장애인 평생학습 실태조사.
- 광주평생교육진흥원 (2021), 2021 광주광역시 장애인 평생학습 실태조사.
- 교육부 (2021). 특수교육통계. 세종.
- 국립특수교육원 (2021a). 지역기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개발 운영 매뉴얼. 교육부.
- 국립특수교육원 (2021b). 2021 평생교육백서. 교육부.
- 국립특수교육원 (2022). 2022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조사 통계자료집.
- 국윤경 (2018). 노인대학 참여에 따른 노인 삶의 만족도와 노인대학 활성화 방안.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시연 (2019). 노인체조프로그램이 노인의 고독감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한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영선 (2017). 성인학습자의 학습동아리 활동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재숙 (2012). 고령장애인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귀자 (2021). 노년기 평생교육 참여동기와 생활만족도와의 관계에서 노인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 가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대규, 김소현, 김현진 (2022). 발달장애인 재직자 직업훈련 효과성 연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발달장애인 향상훈련과정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32(4), 69-95.
- 김동배, 정규형, 이은진 (2012). 노인의 과거 노후 준비정도와 준비유형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과 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 **노인복지연구**, 58, 325-352.

- 김동일, 김은삼, 이연재, 최서현 (2021). 발달장애인 학력보완교육 프로그램 내용 체계화를 위한 델파이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22(3), 693-720.
- 김동일, 김수정, 김경선 (2012). 학교 직업교육이 장애인의 취업 및 임금에 미치는 영향. **장애와 고용**, 22(3), 5-23.
- 김두영 (2015).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선행연구 고찰. **장애인고등교육연구**, 1(1), 21-41.
- 김두영 (2021). 장애성인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만족도가 평생학습 행복지수에 미치는 영향. **예술교육연구**, 19(2), 35-51.
- 김두영, 고등영 (2016).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영역별 중요도에 대한 부모의 인식. **특수교육연구**, 23(2), 241-258.
- 김두영, 김미아 (2015). 장애인야학 교사 및 학습자의 교육만족도 분석 - 전라북도 장애인야학을 중심으로 -.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 1(2), 1-23.
- 김두영, 박원희 (201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체계 개발 기초연구. **특수교육학연구**, 48(2), 245-271.
- 김두영, 이경준 (2018).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종사자의 평생교육 인식 및 요구. **특수교육학연구**, 53(1), 23-47.
- 김두희, 이지혜 (2015). 마음읽기 프로그램이 자폐성장애 아동의 정서 이해 및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장애연구**, 31(4), 1-27.
- 김미란 (2013). 노년기 평생교육 참여 노인들의 평생교육 참여동기와 만족도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아 (2017).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일장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미애, 김성희 (2014). 주거유형에 따른 정신장애인의 생활만족도 연구 : 재가와 시설의 비교.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11, 101-120.
- 김미영, 이채식, 정현용, 한호정 (2019). **대전시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 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대전: 대전평생교육진흥원.
- 김미영, 정현용 (2021). 대전지역 기관별 성인 장애 학습자의 평생교육 참여 경험 및 요구조사. **교육연구논총**, 42(1), 199-233.
- 김범규, 남용현 (2014). 장애인의 취업상태 변화에 따른 일상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연구: 가구균등화 소득 3 분위를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24(3), 67-98.
- 김삼섭, 김기룡, 김지연, 박경석, 박미진, 유기웅, 이경준, 이영미, 정소영, 조민제, 조홍중 (2019). **장애인 평생교육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아산: 국립특수교육원.
- 김성희 (2014). 중증장애인의 실태와 과제. **보건복지 Issue & Focus**, 252, 1-8.
- 김소영 (2014). 정신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대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승완 (2018). 중고령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장애정도 매개효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6(11), 37-44.
- 김승호, 박재국, 김은라 (2016). 지체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주관적 삶의 질. **장애와 고용**, 26(4), 173-195.
- 김연수 (1995). 정신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지지도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수, 윤수인 (2019).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 관한 연구: 인구학적 요인,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건강요인을 중심으로. **생명연구**, 54, 97-120.
- 김영애, 이금진, 이병화 (2019). **장애인복지론**. KNOU PRESS.
- 김용욱, 우정한, 박종화 (2011).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직업교육 중심의 평생교육 모델 개발에 대한 기초 연구. **한국지체부자유아교육학회지 중북·지체부자유연구**, 54(1), 237-256.
- 김용진 (2019). 장애인 이동권 강화를 위한 개별적 이동수단에 대한 실태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9(1), 1-304.
- 김은주 (2017). 고령장애인 삶의 만족도 영향 요인 연구. 한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자영, 한창근 (2016a). 자산수준과 취업여부가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장애와 고용**, 26(3), 5-30.
- 김자영, 한창근 (2016b). 장애인 가구주의 사회적 배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산수준의 매개효과 검증. **사회과학연구**, 42(2), 169-190.
- 김재인 (2014). 중년 여성의 평생교육이 생활만족도 및 여가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21세기사회복지연구**, 11(2), 31-64.
- 김중숙, 윤지수 (2014).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의 학습만족도가 학습성과 및 학업지속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ndragogy Today: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IJACE)**, 17(4), 179-204.
- 김중식, 임왕규 (2014). 노인평생교육 참여동기가 교육만족도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5), 179-189.
- 김지영, 김태강, 정은희 (2016). 청각장애인의 평생교육 이용실태 및 요

- 구조사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5(3), 305-323.
- 김진숙, 이해자 (2013). 청각장애인의 사회적 지원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경제적 지원과 욕구기반지원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22, 25-46.
- 김철진 (2015). 장애 유형에 따른 장애인의 여가활동 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광신논의**, 25, 285-307.
- 김필호, 노충래 (2022). 신체장애여성 생활만족도의 종단적 변화유형 및 예측요인. **한국장애인복지학**, 55(55), 283-316.
- 김학천 (2017). 장애인 삶의 만족도 비교연구: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 어촌지역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현규 (2020). 성인 학습자의 평생교육 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성, 김진숙 (2018). 저소득층의 평생교육 참여 실태와 요구 분석. **문화기술의 융합**, 4(2), 89-96.
- 김혜경 (2017). 중고령 지체장애인의 가계소비지출구조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비장애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37(37), 57-86.
- 김호연 (2020). 장애인 당사자 및 관계자 FGI를 통한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요구 탐색. **특수교육학연구**, 55(1), 159-183.
- 김홍록 (2015).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가 노후생활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경영연구**, 2(1), 173-197.
- 남현정, 오민석 (2020). Lindeman의 성인교육의 의미에 담긴 장애인 평생교육 이념. **평생학습사회**, 6(2), 1-26.
- 박경애 (2015). 척수장애인의 여가활동 참여와 여가제약이 생활만족도에

- 미치는 영향.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명숙 (2012). 장애여성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재활복지**, 16(1), 139-158.
- 박미량, 이달엽, 이연정 (2013). 여성장애인의 사회적 개인적 자원으로서 취업상태, 일자리 만족도, 생활만족도 연구 ; 남성장애인과 비교 중심으로.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6(2), 215-266.
- 박미량 (2014). 임금근로 장애인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미진, 김기룡 (2021). 서울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 학습자의 이용 경험 및 요구.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64(3), 85-112.
- 박상욱, 함은혜, 김훈호, 이재준 (2018).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 참여가 사회적 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3), 65-87.
- 박선우 (2023). 뇌병변 장애인의 이동권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경기도를 중심으로 -. 평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수경 (2006). 자립생활 패러다임에 따른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 : 생애주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8(1), 237-264.
- 박용순 (2017). 임금근로 장애인의 좋은 일자리 상태변화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연구. **한국케어매니지먼트**, 23, 57-78.
- 박원희 (2002). 중도·중복 장애인 여가활동 프로그램의 방향.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은경 (2021). 성인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자경 (2009).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모형 구축 및 검증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중빈, 백영은 (2022). 임금근로 장애인의 여가활동 경험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직무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장애인복지연구**, 13(1), 34-60.
- 박주영 (2018). 고령장애인 실태와 생활만족도 영향 요인: 1인가구와 다인가구 비교.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12), 272-280.
- 박주영, 오혜경 (2013). 독거가구 고령여성장애인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22, 109-128.
- 박진용 (2018).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제도에 관한 공법적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효은 (2013). 정신적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 결정요인.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희찬 (2016). 장애학생 진로, 직업교육 정책의 변천.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9(2), 59-81.
- 백은령 (2003). 지체장애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환경요인과 사회통합정도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백종면, 김영표 (2019).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법규 및 지원체계의 현황과 과제.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9(1), 859-871.
- 변중임, 김인숙 (2011). 평생학습 참여 효과 분석 연구. **평생교육학연구**, 17(4), 29-53.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2019). **2019 부산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조사**. 부산: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2020). **2020년 부산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조사**. 부산: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 서원선, 고아라 (2016).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자격·채용시험의 시험편의 개선을 위한 연구. **장애와 고용**, 26(4), 33-65.

- 서원선, 이수용 (2017). 고령장애인의 생활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종단적 분석. **장애인복지연구**, 8(2), 91-125.
- 서유경, 박재국, 장지현 (2022).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경험 및 요구조사: 부산광역시 S, Y구를 중심으로. **교육공동체연구와실천**, 4(2), 85-107.
- 서혜란, 강은영 (2015). 시각장애대학생을 위한 대체자료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6(4), 5-30.
- 손환, 방선희 (2010). 생활체육 참여자들의 여가관여에 따른 참여동기, 스포츠몰입, 생활만족간의 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19(2), 153-165.
- 송진영 (2021). 장애인의 여가활동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장애수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41(1), 146-159.
- 신소정 (2018). 평생교육참여자의 참여 동기와 노년준비인식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8(11), 707-715.
- 신승배 (2017). 한국 장애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문사회** 21, 8(4), 1043-1068.
- 신영일 (2022). 취업한 발달장애인의 경제특성과 건강특성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 **안전문화연구**, 17, 299-315.
- 심미자 (2022).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요구분석 및 시사점. **인문사회** 21, 13(5), 3747-3762.
- 안수인, 한정란, 이남 (2021). 노년기 평생교육 참여와 삶의 질. **노년교육연구**, 7(1), 49-68.
- 안은미 (2015). 중년여성의 평생학습 참여가 주관적인 삶의 질 인식에 미

- 치는 영향. 한국교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미란 (2015). 평생학습 참여 수준이 지역주민의 생활만족도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순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양옥경 (1994). 삶의 만족 측정을 위한 척도 개발. **한국사회복지학**, 24, 157-198.
- 양정승 (2022). 직업훈련 교·강사의 특성이 훈련성과에 미치는 영향. **직업과 자격 연구**, 11(1), 127-146.
- 어재석, 정광령 (2013). 대학생의 여가스포츠활동 참여동기가 참여만족 및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교과교육학연구**, 17(1), 53-70.
- 에이블뉴스신문 (2023).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노동 발목 잡는 '기초생활보장제도', 2023.02.21.
- 오명란, 김경신 (2015). 여성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50, 155-179.
- 오세란 (2017). 장애인의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장애와 고용**, 27(1), 255-278.
- 오수경 (2019). 장애인의 여가활동 참여가 일상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사회복지연구**, 9(2), 43-59.
- 오지혜 (2015). 학습동아리 참여자의 동기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현주 (2016). 장애인의 평생교육 경험과 그 의미.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옥정달, 유장순 (2018).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및 활동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 분석.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11(4), 159-178.
- 유미나, 이근매 (2016).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중도척수장애인의 장애수용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9(

- 4), 95-114.
- 윤상은, 이달엽 (2011). 지체장애인의 고학력화가 직업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대안 탐색.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4(4), 47-69.
- 윤상은, 이달엽 (2012). 고학력장애인의 직업특성과 직업재활 태도 연구. **장애와 고용**, 22(1), 5-28.
- 윤숙이 (2022). 중도장애인의 사회적 배제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장애수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영배, 유준호 (2019). 시니어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음악활동 여부에 따른 생활만족도와 죽음불안의 차이 분석. **음악교육공학**, 41, 1-19.
- 윤중오, 김민정 (2013). 청각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 영역별 교수-학습 모형 개발. **장애와 고용**, 23(2), 81-118.
- 윤혜경 (2022). 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참여동기 및 교육요구 분석. 한국교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준 (2006). 장애인 자조모임의 발전과정 분석과 자립생활에의 실천적 함의.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71-176.
- 이계승 (2014).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변화양상과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 자본의 구성개념인 네트워크와 사회참여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5(2), 375-402.
- 이기언 (2013).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요인이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 **평생교육·HRD연구**, 9(2), 91-118.
- 이기언 (2014).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성과 결정요인.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동석 (2018). 장애인복지관의 평생교육사업의 성과와 영향요인 - “고양 평생대학” 이용자 대상 FGI를 중심으로. **장애인복지연구**, 9(2),

1-29.

- 이동진, 강미경, 유가효 (2010). 장애인의 여가활동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5(4), 137-155.
- 이미연 (2005). 청각장애인의 종교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충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미현 (2017).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현황 및 욕구조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미현, 박성지 (2018).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참여현황과 욕구. 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7(3), 191-214.
- 이슬아 (2015). 학습동아리 활동체계의 변화과정과 의미.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우진, 이재호 (2021). 청각장애인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을 위한 실태조사. **한국언어치료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16-319.
- 이은영, 김용탁 (2022). 중도장애인 직업훈련방안 연구 - 척수장애인을 중심으로. **기본과제보고서**, 1-166.
- 이은일 (2022). 지체장애인의 사회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10), 715-730.
- 이인자 (2010).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에 관한 연구. 삼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재준, 함은혜 (2018). 비경제활동 여성의 비형식 평생교육 참여가 핵심역량에 미치는 효과. **Andragogy Today :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21(3), 27-55.
- 이재준, 함은혜 (2021). 평생교육 참여는 학력과 소득의 관계를 조절하는

- 가? : 연령대 및 세대별 차이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7(1), 439-458.
- 이중화 (2015). 장애인의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3(1), 503-514.
- 이중섭 (2009). 빈곤 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광주광역시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을 중심으로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6(1), 79-105.
- 이중섭 (2010). 장애노인의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장애인의 여가활동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장애수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연구: 광주광역시 등록장애인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47, 187-212.
- 이하영, 임경원 (2019).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국내연구 동향분석: 1998년부터 2018년까지. **평생교육학연구**, 25(3), 1-28.
- 이해주, 최운실, 권두승, 장원섭 (2018).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KNOU PRESS.
- 이효재 (1979). 분단시대의 사회학. **창작과비평**, 14(1), 250-268.
- 이희정 (2022). 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순용, 김송희 (2003). 여가활동유형에 따른 여가만족 및 생활만족 연구, **한국여가레크레이션학회지**, 24, 17-30.
- 장애인생활신문 (2021). **평생교육학습자 중 성인장애인은 0.03% 불과**. 2021.11.04.
- 장재형 (2011). 지체 장애인의 여가활동 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근성 (2022). 장애인의 여가사회활동, 생활만족도, 행복의 관계 : CO

- VID-19 전후 시점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2(3), 560-566.
- 전리상 (2022). 성인장애인 평생교육의 성과인식과 삶의 질의 관계-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3(3), 2097-2108.
- 전명숙 (2018). 장애인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1), 210-221.
- 전지혜, 남지현 (2022). 근로장애인의 소득과 건강상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소극적 여가활동 및 적극적 여가활동의 다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3(4), 86-95.
- 정경희, 안성우, 신창숙 (2014). 장애인의 여가생활양식과 여가만족도 및 생활만족도의 관계.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7(4), 205-228.
- 정덕례 (2020). 학습동아리 구성원의 셀프리더십이 동아리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민승, 최운실 (2007). 평생교육기관에서의 학습성과에 대한 질적 분석. **평생교육학연구**, 13(3), 169-186.
- 정병두 (2019). 고령여성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종단연구. 신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연성 (2012). 지체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정도와 자아존중감 및 생활만족도의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48, 665-674.
- 정연수 (2017). 대학기반 비학위과정으로 운영된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실천사례연구: D대학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심으로. **지적장애연구**, 19(1), 185-207.
- 정영득 (2017).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이동권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한일장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지용 (2012). 평생교육에서의 참여연구의 기원과 발전. **평생교육학연구**, 18(4), 87-102.
- 정현아 (2020). 장애인평생교육 참여동기가 교육만족도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형진 (2010). 장애인 재활서비스의 생활만족도 영향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혜령 (2016). 성인의 고등평생교육 참여의 사회적 성과 분석. **정책과제**, 15, 1-184.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2018). **2018 제주지역 장애인 평생학습 실태조사**.
- 조금순 (2014). 평생교육학습자들의 참여동기유형에 따른 학습동아리 활성화방안에 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상은 (2022).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다차원적 환경요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웰니스학회지**, 17(1), 187-195.
- 조인식 (2022).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과 개선과제. **NARS현안분석**. 국회입법조사처.
- 조주은 (2003).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장애 유형과 정도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26(2), 147-173.
- 조창빈, 김두영 (2016).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현황 및 요구 분석. **특수교육 저널 : 이론과 실천**, 17(4), 1-24.
- 조창빈, 김두영 (2020).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현황 및 요구. **평생학습사회**, 16(2), 233-259.
- 조창빈, 김두영, 장철승 (2022).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 및 학습성과 분석.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61(2), 149-176.

- 조창빈, 이상진, 김두영 (2018a).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참여 실태 및 요구 분석: 장애인복지관 이용자를 중심으로.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7(1), 195-217.
- 조창빈, 정해동, 김두영 (2018b). 성인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실태 및 요구 분석 -경기도를 중심으로-.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19(2), 99-122.
- 조창빈, 장철승, 김두영 (2021). 장애성인의 문해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및 요구. **재활복지**, 25(3), 105-129.
- 조현진, 박재국, 박량은 (2015). 지체장애 근로자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탐색.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8(2), 203-227.
- 조혜숙 (2003). 장애인의 사회적 지지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경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주미란 (2015). 성인여성의 평생교육 참여와 학습동아리 활동이 재취업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지정례 (2013). 여성평생교육학습자의 생활공예 프로그램 참여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광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차재경, 박영근, 이재호 (202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연구: G 광역시 평생교육 기관 종사자를 중심으로. **평생학습사회**, 17(2), 201-232.
- 최운실 (2005). 성인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성과 분석-HRD자본, 사회문화적 자본, 개인적 자본 측면의 성과 인식을 중심으로-. **직업교육연구**, 24(3), 381-420.
- 최운실 (2006). 한국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 참여 특성 및 관련 요인 분석. **평생학습사회**, 2(1), 1-35.
- 최운정, 박경수, 이석호 (2014). 중고령 여성장애인의 취업여부에 영향을

- 미치는 요인 연구. **장애와 고용**, 24(3), 123-146.
- 최용용, 윤현희, 이정애 (2009). 장애 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
장벽이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 **장애와 고용**, 19(2), 5-28.
- 최윤영, 이세희 (2020). 장애인 평생교육의 인식 및 과제에 관한 연구.
융합정보논문지, 10(4), 133-139.
- 최채은 (2012).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전
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현동 (2018). 노인의 사회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국제신학
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희철, 오승진, 김경은 (2019). 지체장애인의 자기존중감의 발달 궤적과
직무만족의 관계.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62(4), 181-206.
- 탁기주 (2010). 노인의 여가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립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 한수정 (2016). 학력, 학습태도, 비형식 평생교육 참여가 성인학습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6(
2), 379-394.
- 한승길 (2013). 척수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일장신대 박사학위논문.
- 한우섭, 김미자, 신희원, 연지연, 진규동, 신재홍, 송민열, 김대식, 최용범
(2019), **평생교육론**, 서울: 학지사.
- 한준상 (2002). 평생학습 사회와 장애인의 평생교육. **국립특수교육원 2
001년 특수교육 정책포럼 자료집**. 1-18.
- 허영주 (2016). 개인적 변인과 평생교육 참여에 따른 노인 삶의 만족도
차이와 평생교육의 방향. **교육문화연구**, 22(2), 77-100.

- 허창덕, 신주영 (2011).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국내 정책의 실태와 개선 방향. *재활복지*, 15(3), 1-25.
- 홍성두, 김도현, 김수현, 김원호, 주교영, 지은 (2018). **발달장애인 평생 육과정 개발기초연구**. 아산: 국립특수교육원.
- 황지혜 (2010). 성인여성의 평생교육 참여가 삶의 만족도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llmendinger, J., Kleinert, C., Pollak, R., Vicari, B., Wölfel, O., Althaber, A., & Trahms, A. (2019). *Adult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325-346). Springer Fachmedien Wiesbaden.
- Aspin, A., Evans, K., Chapman, J. and Bagnall, R. (2012) Introduction and overview. In *Second International Handbook of Lifelong Learning* (Dordrecht, Springer),
- Billett, S. (2010). The perils of confusing lifelong learning with lifelong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29(4), 401-413.
- Carroll, P., Witten, K., Calder-Dawe, O., Smith, M., Kearns, R., Asiasiga, L., & Mavoa, S. (2018). Enabling participation for disabled young people: study protocol. *BMC public health*, 18(1), 1-11.
- Egilson, S. T., Ólafsdóttir, L. B., Ingimarsdóttir, A. S., Haraldsdóttir, F., Jóhannsdóttir, Á., Gibson, B. E., & Hardonk, S. (2021). Life quality and participation of disabled children and young people: Design and methods of a transformative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ative Methods, 20,

Frey, B. S., & Stutzer, A. (2000), Happiness, economy and institutions. *The Economic Journal*, 110(446), 918-938.

Gomes Machado, M. L., Santos, F. H., Schoen, T., & Chiari, B. (2016). Effects of vocational training on a group of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Journal of Policy and Practice in Intellectual Disabilities*, 13(1), 33-40.

Jarvis, P. (1983).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London: Croom Helm.

King G, Law M, King S, Rosenbaum P, Kertoy M, Young N. (2003). A conceptual model of the factors affecting the recreation and leisure participation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Phys Occup Ther Pediatr*. 23, 63 - 90.

Medley, M. L. (1976), Satisfaction with life among persons sixty-five years and older : A causal model. *Journal of Gerontology*, 31(4), 448-455.

National Centre for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2015). Supporting Tertiary Students with a Disability Or Mental Illness. Good Practice Guide. ERIC Clearinghouse.

Neugarten, B. L., Havighurst, R. J., & Tobin, S. S. (1961). The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16, 134 - 143.

Obiakor, F. E., Obi, S. O., Utley, C. A., Graves, J., & Banks, T. (2019), Special education for young learners with disabilities: Moving forward. *Advances in Special*

Education, 34, 209-220.

Waziana, W., Andewi, W., Trisnawati, T., & Ponidi, P. (2020). Theoretical Analysis of the Framework Lifelong Education on Quality of Life. *Jurnal Iqra': Kajian Ilmu Pendidikan*, 5(1), 71-84.



부록(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장애인 친구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설문 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
합니다.

본 설문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 조사로써 설문의 대상은

부산에 거주하는 만 17세 이상의 장애성인입니다.

연구의 목적은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참여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응답하신 모든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본 설문에 대한 귀하의 응답 및 분석결과는
연구를 위한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본 설문지의 각 문항은 정해진 답이 없으며, 솔직하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설문과 관련하여 의문점이 있으면 아래의
이메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소속학과 ;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평생교육·인적자원개발 전공

지도교수 : 주 동 범

연 구 자 : 이 원 근

이 메 일 ; from75203@daum.net

I . 인구·사회학적 특성

※ 다음은 귀하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어보신 후 해당 항목의 ()에 표시(V)를 해 주세요.

1. 성별	① 남성 () ② 여성 ()
2. 나이	① 17세~39세 () ② 40세~59세 () ③ 60대 이상 ()
3. 장애 유형	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 ②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 ③ 발달장애, 정신장애 () ④ 내부기관 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 ⑤ 중복장애 ()
4. 장애 정도	① 심한 장애 () ② 심하지 않은 장애 ()
5. 보행방법	① 스스로 보행 () ② 휠체어, 목발, 도구 이용 등 () ③ 도우미 (활동지원사, 자원봉사자 등)도움 ()
6. 학력	① 초등학교 졸업 이하 () ② 중학교 졸업 () ③ 고등학교 졸업 () ④ 대학 졸업 이상 ()
7. 직업	① 있다 () ② 없다 ()

II. 평생교육 참여

◎ 다음은 귀하의 평생교육 참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해당하는 항목의 ()에 표시(V)해 주시기 바랍니다.

	<p>1. 평생교육 중에서 경험 있는 참여 프로그램 내용? (다중응답 가능)</p> <p>① <u>기초문해교육 (한글문해교육, 생활문해교육, 기초자립교육)</u> ()</p> <p>(예시) 도전문맹, 문해교실, 장애인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 한글교실(초급,중급) 고급 문해반, 컴퓨터 문해교육반, 한글 응용교육, 한글 작문교실 스스로 학교, 신변자립교육, 지역사회적응교육, 자립생활지원교육</p> <p>② <u>학력보완교육 (초등학력보완, 중등학력보완, 고등학력보완)</u> ()</p> <p>(예시) 중입검정고시반, 초등학력 인증강좌, 초등교과 연계강좌 고입검정고시반, 대입검정고시반, 수능준비반 학점은행제강좌, 독학사 강좌, 대학비학점 강좌</p> <p>③ <u>직업능력향상교육 (기초직업교육, 전문직업교육, 자격인증교육)</u> ()</p> <p>(예시) 직업의식교육, 직업탐색교육, 직업적응훈련, 직장예절교육 기능대회준비교육, 직무능력향상교육, 직종훈련교육, 직업기능교육. 지도자양성과정, 웃음치료사양성과정, 컴퓨터자격취득과정, 점역교정사양성과정</p> <p>④ <u>문화예술교육 (여가 스포츠, 문화예술향유, 문화예술숙련)</u> ()</p> <p>(예시) 레저스포츠강좌, 생활스포츠강좌, 스포츠예술활동, 건강스포츠강좌 문화예술관람, 미술(공예)활동, 사진교실, 노래교실(민요교실) 서예교실, 악기교실, 중창·합창교실, 도자기공예, 영상미디어교실</p> <p>⑤ <u>인문교양교육 (사회재활교육, 생활소양교육, 인문학적교양)</u> ()</p> <p>(예시) 지체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중도시각장애인 재활교육, 성인심리재활 보조기기활용교육, 역할수행교육, 예절교육, 정보인터넷활용, 생활외국어, 가정생활, 생활한자, 지역문화탐방, 건강강좌, 시낭송프로그램, 인문학·철학강좌</p> <p>⑥ <u>시민참여교육 (시민의식교육, 시민역량교육, 시민활동교육)</u> ()</p> <p>(예시) 인권교육, 양성평등교육, 다문화이해, 주민자치교육, 환경생태체험강좌 인권강사 양성과정, 수화통역사 양성과정, 장애인활동가 양성과정 지역나눔활동, 수확교실, 봉사활동 동아리, 휠체어지킴이교육</p>
--	--

참여 영역

참여 경험	2. 평생교육 수업방식 중에서 참여경험 이 있는 곳? (다중응답 가능)
	① 강사강좌 () ② 직업훈련 () ③ 원격강좌 () ④ 학습동아리 () ⑤ 개인교습 () ⑥ 세미나 및 워크숍 ()
참여 기관	3. 평생교육을 많이 경험해본 교육 장소 는? (다중응답 가능)
	① 평생교육법 등록기관 () ② 주민자치센터 () ③ 지역 도서관 () ④ 사회복지관 () ⑤ 문화예술 시설 () ⑥ 노인관련 시설 () ⑦ 장애인복지관 () ⑧ 지역사회 재활 시설 () ⑨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 ⑩ 장애인 야학 () ⑪ 여성관련 시설 () ⑫ 청소년관련 시설 () ⑬ 직업교육 시설 () ⑭ 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참여 목적	4. 평생교육에 참여 했던 목적 은? (다중응답 가능)
	① 직업과 관련 () ② 건강 () ③ 심리적 만족 및 행복감 () ④ 지식 습득 등 자기 계발 () ⑤ 시민의식 증진 및 사회참여 () ⑥ 친목 도모 ()

5. 평생교육 교육 참여 만족 의 정도? (1개만 응답가능)	
참여 만족	① 매우, 도움이 되었다. ()
	② 약간, 도움이 되었다. ()
	③ 모르겠다. ()
	④ 약간, 도움이 되지 못 한다. ()
	⑤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

Ⅲ. 생활만족도

◎ 다음은 귀하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해당하는 숫자 위에 표시(V)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의식주 영역	1. 현재 사는 곳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일상적으로 입는 옷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신체· 정신 건강 영역	4. 요즘 심리적 상태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요즘 신체 건강상태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일· 경제 영역	6. 요즘 정신건강 상태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7. 하고 싶은 만큼 일하고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사회 여가 생활 영역	8. 현재 한 달 수입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9. 현재 사회생활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행 복 감 영역	10. 요즘 하루를 보내는 방법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현재의 삶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자 아 감 영역	12. 현재 행복하다.	①	②	③	④	⑤
	13.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4. 전반적으로 자신에게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